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73호 【루계 제23390호】 주체100(2011)년 3월 14일 (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해군협주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해군협주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며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는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협주단예술인들의 가슴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당과 군대의 책임일군들인 김정은동지, 리영호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홍석형동지,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 김정각동지, 김양건동지, 박도춘동지, 최룡해동지, 태종수동지와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김원홍동지, 정명도동지,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 상장 한동근동지가 공연을 함께 보았다.

협주단은 혼성합창 《최고사령관기 올렷》, 혼성2중창과 합창 《나의 함은 정든 조국땅》, 시랑송 《친어버이의 당부》, 어은금병창 《매혹과 흠모》, 타프춤 《조국의 바다를 지킨 기쁨안고》, 녀성2중창과 남성4중창 《우리 군대 우리 인민》, 남성중창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녀성독창과 합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무용 《바다의 결사대》, 시와 합창 《오늘의 7련대 되리라》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전투적기백과 혁명적열정이 나래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무적강군으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인민군군인들의 철의 신념과 백절불굴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관람자들은 승리의 함성인양 기운차게 터치는 군인예술인들의 충성의 노래, 신념의 노래를 들으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불패의 위용떨치며 온갖 력사의 도전들을 과감히 박차고 승승장구하여온 잊을수 없는 나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았으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기어이 이룩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만사람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며 투쟁에로 부르는 격동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뜨거운 충성의 열정으로 하여 장내는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해군협주단 예술인들이 조국의 바다를 지켜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쳐가는 용감한 해병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생동하고 진실하게 반영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가지고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협주단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군인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 멸적의 투지와 용맹을 안겨주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투쟁기풍을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협주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활동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 군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기여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진군을 더욱 힘있게

공동사설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추동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도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은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켜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단위들이 대고조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적극 고무추동하는것과 함께 순천구두공장, 평성합성가죽공장 등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질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은 들끓는 막장에 들어가 탄부들과 함께 석탄도 캐고 탄차도 밀면서 그들을 위훈의 한길로 떠밀어주고있다. 특히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탄전이 들끓게 하고 갱막장들에서 석탄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그리하여 순천, 북창, 덕천, 득장, 안주, 개천지구 탄광들의 탄부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가고있다.

도안의 전력공업부문에서도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은 나라의 전력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도가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화력발전소들과 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도록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와 대동강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청천강화력발전소에 내려간 도당위원회일군들은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오늘의 대고조전투에서 모두가 영예의 승리자가 되자고 호소하면서 그들을 전력증산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의 실속있는 조직정치사업에 의하여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는 발전설비가동대수를 늘이는 성과가 이룩되고있으며 대동강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들에서는 3월에 들어와서도 전력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올해 알곡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도 짜고들고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은 나라의 알곡생산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있는 숙천군과 문덕군, 평원군, 안주시, 증산군을 비롯한 서해벌방지대들에 자주 나가 농업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화선식정치사업을 벌리면서 걸린 문제들도 제때에 풀어주어 도안의 모든 협동벌이 봄철영농전투로 들끓게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의 대담한 작전과 전투적인 일본새, 참신한 조직정치사업에 의하여 도안의 대고조전투장들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높여

신의주방직공장에서

인민생활대고조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신의주방직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혁신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지금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당을 따라 대고조의 한길로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내달리고있습니다.》

공장초급당위원회에서는 직장과 직장, 작업반과 작업반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을 벌려 온 공장에 대혁신, 대비약의 불길을 지펴올리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비롯한 행정경제사업의 모든 공간을 옳게 리용하여 대중의 생산의욕을 북돋아주고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킴으로써 모든 종업원들이 사회주의경쟁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고있다.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은 편직사직장에서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생활대고조진군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줄기찬 돌격전을 벌려 매일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1편조직장, 3정방직장, 4직포직장, 염색직장, 직포준비직장을 비롯한 공장의 모든 생산단위들에서도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줄기차게 타오르는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속에 권사직장 권사공 리윤희, 1정방직장 정방공 한정신, 편직사직장 권사공 채향순동무들이 3월초까지 상반년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 자랑찬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그들의 뒤를 이어 권사직장 권사공 강향숙, 김금주, 김현임동무들을 비롯한 공장의 많은 종업원들이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 불같은 애국적열의를 안고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지금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날에날마다 새로운 혁신과 위훈을 창조하면서 질풍같이 달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농촌지원사업에 큰 힘을

온 나라에 농촌지원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농촌에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단위의 일군들이 농촌지원의 앞장에 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도급기관들에서 농촌지원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한마음안고 도급기관의 일군들은 지난 1월에만도 농기계부속품 1만 9 200여점, 소농기구 1만 8 700여점을 비롯한 많은 영농물자들을 농장들에 보내주었다. 신의주시와 정주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많은 영농물자를 마련하여 농장들에 보내주었다.

평안남도의 기관,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농촌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평성시에서 1만 수천점의 소농기구들을 비롯한 많은 영농물자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으며 도안의 다른 시, 군들에서도 각종 영농물자들과 중소농기구들을 농촌에 보내주었다. 도에서는 한달동안에 3만여점의 농기계부속품과 26만여점의 소농기구 등을 마련하여 농장들에 보내준데 이어 그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황해남도당위원회에서는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기어이 수행할 결의드높이 영농전투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고무해주기 위하여 모든 단위들에서 농촌지원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도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한달 남짓한 기간에 파철을 비롯한 많은 유휴자재들을 모아 해주련결농기계공장과 해주뜨락또르부속품공장에 보내주어 이곳 로동자들의 증산투쟁을 고무해주었다. 재령군의 기관, 공장, 기업소들에서 많은 가마니짜는기계, 새끼꼬는기계와 각종 농기계부속품, 소농기구를 만들어 농장들에 보내준것을 비롯하여 다른 군들에서도 유기질비료와 소농기구를 마련하여 농촌에 보내주었다.

황해북도안의 시, 군들에서 농촌지원사업을 통이 크게 벌리였다. 신계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기계부속품 1천여점과 소농기구 7천여점을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어 농사차비를 크게 도와주었다. 다른 군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군중적으로 농기계작업소에 필요한 자재를 해결하였으며 농기계부속품 5만여점, 소농기구 66만여점을 비롯한 많은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 농촌에 보내주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를 비롯한 다른 도들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농촌지원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한성일

증산의 열풍 세차게 일으킨다

각지 편직공장들에서

편직공업관리국산하 각지 공장로동계급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진군의 불길높이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을 지켜선 책임감을 안고 증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2월계획을 넘쳐 수행한 이들은 3월에도 련일 실적을 올리고있다.

일군들은 생산조직과 지휘를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한편 화선식정치사업과 원료, 자재보장을 확고히 앞세워 대중의 앙양된 열의가 높은 성과로 이어지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생산돌격전을 벌리고있는 평양양말공장 로동계급이 김철의 호소에 혁신창조로 화답하고있다. 이들은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열의밑에 생산을 계속 늘여나가고있다.

뜻깊은 2월에 뜨개옷과 내의류 등 지표별로 계획을 완수한 이곳 로동계급의 충천한 기세가 일터마다에 차넘치고있다.

선교, 강계편직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증산투쟁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공장들에서는 행정경제사업을 짜고들고 계획규률, 재정규률을 철저히 지켜 생산성과를 더욱 확대하고있다.

사리원, 신의주편직공장에서도 질좋은 제품을 계획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있으며 신의주영예군인편직공장, 애국편직물공장에서도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본사기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올 일념으로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 김진명 찍음

곽산간석지 2계단공사 추진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에서

곽산간석지 2계단공사장에 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짧은 기간에 1차물막이공사를 하여 륙지와 바다의 6개섬을 련결한 기세로 곽산간석지 2계단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간석지를 개간하여 부침땅면적을 늘이는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한 문제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대계도간석지건설의 나날에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곽산간석지 2계단공사를 끝낼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제기되는 문제를 다 풀어주시였다.

련합기업소당조직에서는 곽산간석지 2계단공사를 짧은 기간에 해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력량편성을 실정에 맞게 하고 공사성과를 계속 확대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고있다. 공사장에 내려간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련합기업소일군들은 시공조직사업을 면밀히 하는 한편 조건보장사업을 앞세워 전투장들에서 혁신적성과들이 창조되도록 하고있다.

련합기업소안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모두가 간석지건설에서 또다시 영웅적위훈을 창조할 드높은 결의로 가슴을 끓이며 떨쳐나 기세를 올리고있다. 간석지건설자들을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로, 조국과 인민이 영원히 기억하고 추억할 위훈의 창조자들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 높은 건설성과로 보답할 일념안고 분발해나선 그들은 륜전기재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건설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곽산간석지건설사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혁신의 앞장에 섰다. 10호방조제 1차물막이를 성과적으로 해낸 기세로 신심드높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방조제공사에 필요한 돌채취작업을 다그치고있다. 현지에 나간 일군들은 기술자들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돌채취를 앞세우도록 하고있다. 사업소에서는 륜전기재들의 리용률을 높이는 사업에 힘을 넣어 돌채취와 운반실적을 높이고있다.

방조제공사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은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하면서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석화,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발파를 성과적으로 하기 위해 굴진을 앞세우면서 굴착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있다. 청강기계화사업소의 일군들과 운전사들은 수송이자 곧 공사실적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대형화물자동차들의 실동률을 부쩍 높이면서 막돌과 흙을 제때에 수송하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공사성과가 오르는데 맞게 여러 방조제공사와 배수문공사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창길

장군님과 CNC (9)

CNC노래

《첨단을 돌파하라》라는 정론이 당보 지면에 실린 바로 그날 김정일동지께서는 한 작곡가를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그는 가요 《더 높이 더 빨리》를 비롯하여 새것을 지향하는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내놓은 젊고 실력있는 작곡가였다.

《오늘 동무에게 중요한 과업을 주겠습니다. CNC에 대한 노래를 하나 만들어야겠소.》

《CNC를 말입니까?》

《그렇소. CNC노래, 만들되 아주 빨리 만들어야겠소.》

《알았습니다.》

작곡가는 그날부터 작품창작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았다.

CNC기술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이 새로운 선률과 가사를 뽑아낼수가 없었던것이다.

작곡가는 신문자료는 물론 기술잡지에 나가는 CNC공작기계자료까지 일일이 번져보면서 CNC를 연구하였다. 잠결에도 CNC기계의 움직임을 상상해보면서 동작원리에 맞는 선률을 찾아내기 위하여 고심하였다.

첨단기계의 표상을 가사와 선률에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며칠이 흘러간 때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첨단돌파의 위대한 사상에 접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대전이 벌어지고있는 시대의 벅찬 흐름속에서 당보에 《첨단을 돌파하라》라는 정론을 내보내기를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첨단을 돌파하라!》, 이것은 현시기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구호라고, 이것은 당중앙위원회 구호이라고 말씀하시였던것이다.

지금은 지식경제의 시대입니다. 기계 한대를 만들어도 《련하기계》와 같은 그런 첨단수준의 기계를 만들어내야만 우리 나라가 빨리 경제강국에 높이 올라설수 있습니다. CNC공작기계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선 《련하기계》는 조선의 자랑입니다. …

《련하기계》개발자들이 지금 만들어내고있는 CNC기계들은 CNC기술에서 앞섰다고 자랑하는 나라들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기술적높이에 이른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1980년대에 로보트시대를 열어놓은데 기초하여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인 1990년대에 CNC기계를 만들어 기계기술분야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쥘데 대한 구상을 펼치였습니다. …

인민들이 정론을 보고 우리 나라에서 《련하기계》와 같이 훌륭한 최첨단수준의 CNC기계가 생산되고있는데 대하여 여직 모르고있었다고 하면서 기쁨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데 이제는 그 어느 분야에서나 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련하기계》개발자들이 내가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우리의 지식인들을 굳게 믿고 고난의 길에서도 첨단에로의 길을 개척해온데 대하여 잊지 못해 추억하면서 승리의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할 결심을 다지고있다고 합니다. …

첨단돌파의 력사와 원리를 깨우쳐주시는 그 한마디한마디의 말씀마다가 신선한 샘물처럼 작곡가의 온몸에 흘러들었다.

《내가 이미 말하였지만 〈첨단을 돌파하라〉라는 주제로 노래를 지으면 시대를 선도해나가는데서 큰 힘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이 간곡한 말씀을 받아안고 작곡가는 더욱더 분발하여 창작에 달라붙었다.

어느날 작곡가는 또다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CNC노래 어떻게 되였소?》

작곡가를 만나신 장군님의 첫 물음이였다.

CNC노래!

순간 작곡가의 머리속에 섬광이 번쩍이였다.

내가 왜 이것을 몰랐던가, 장군님께서는 이미 CNC노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장군님의 그 말씀이 곧 노래의 상이다, CNC를 문자그대로 가사에 담자! 라는 생각이 뇌리를 쳤다.

그날밤 작곡가는 피아노의자에 앉았다. 그는 하얀 건반우에 10개의 손가락을 자신있게 얹었다.

CNC공작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마냥 흥겨운 리듬을 타고 처음 들어보는 특색있는 노래선률이 힘있게 울려나왔다.

무엇이나 마음만 먹으면 프로그람에 따라 만드는
선군시대 기계공업의 자랑 우리 식 CNC기술
…

가사와 곡이 하나로 일치된 명작이 작곡가의 심장속에서부터 단숨에 흘러나왔던것이다.

노래 《돌파하라 최첨단을》이 신문, 방송, 텔레비죤을 통하여 울려퍼졌다. 처음 들어보는 특색있는 선률과 가사가 만사람을 놀래웠다. 파문이 일어났다. 말그대로 CNC폭풍이였다.

10월의 축사

2009년 10월 10일이였다.

선군승리의 기쁨속에 맞이하는 당창건기념일이였다.

어제 금방 있은 은하수관현악단의 경축공연분위기가 일군들의 얼굴마다에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듯 하였다.

은하수관현악단의 경축공연에서 인상적인것은 마지막부분에서 노래 《돌파하라 최첨단을》, 《더 높이 더 빨리》, 《전선에서 만나자》들로 맹렬한 음악절정을 만든것이였다.

경축행사에 참가한 일군들과 상봉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말씀에는 경축공연에 대한 이야기가 다분히 섞여있었다.

《어제 공연이 〈돌파하라 최첨단을〉, 〈더 높이 더 빨리〉, 〈전선에서 만나자〉로 구성되였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나는 공연을 보면서 있지 않겠습니까. 놀랍기도 하고 가슴이 울렁거리기도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그럴거요.》라고 응대를 해주시였다.

그러시더니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큰소리로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아무렴. 변이 나는 때에 가사와 선률에서도 변이 나야 합니다. 변이 나야 한단 말이요!》

장내는 기쁨과 행복으로 술렁이였다.

이윽고 자리가 정돈되였다.

재청도 요청도

그이께는 사랑하시는 노래가 많다.

혁명은 노래로 시작된다는 그이의 유명한 명제가 말해주는것처럼, 노래와 함께 걷는자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그이의 혁명철학이 말해주는것처럼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노래와 음악은 불변의 총대와 함께 또 하나의 동지이고 친구이며 벗인것이다.

수십년간 혁명을 령도해오시는 나날 그이께서 사랑하시며 반복하여 들으신 노래들이 수없이 많았다. 하지만 CNC노래처럼 그렇게 많이도 반복하여 들으신 노래는 드물것이다.

언제인가 은하수관현악단의 공연무대에 합창 《돌파하라 최첨단을》이 울랐을 때에도 그이께서는 뜻밖에 재청을 요구하시였고 다른 예술단체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에도 재청을 요구하시였다.

공연무대에서만이 아니였다. CNC노래에 대한 요청은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계속되였다.

그이께서 자강도의 어느 한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신 날에 공장일군들에게 《돌파하라 최첨단을》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하신 사실은 유명한 혁명일화로 남아있다.

흘러온 력사에는 음악으로 정치를 한 령도자들에 대한 이야기, 음악으로 전쟁을 지휘한 장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여있다. 음악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생활과 국가의 발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것은 령도자의 정치에 따르는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정서와 리상의 반영인 음악을 인민의 진보와 인류의 평화를 위한 투쟁의 무기로 활용하시는 정의와 진리의 인간이시며 장군중의 장군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여 우리는 CNC노래열풍의 시대까지 맞이하게 된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CNC노래를 발기하시여 온 나라에 파급되도록 하시였을뿐만아니라 자신께서 이 노래를 더없이 사랑하시는것으로 하여 지식경제시대를 향한 조선의 발전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이 노래가 창작된 후 공훈국가합창단과 만수대예술단을 비롯한 중앙의 예술단체들은 물론 지방의 예술단들과 크고작은 예술선전대들에서 다양한 곡목으로 형상하였다. 군무자예술축전, 로동자예술축전, 지어는 대학생들의 예술공연무대들에서도 CNC노래가 없으면 허전할 정도로 많이 공연되고 많이 불리워졌다. 강성대국건설대전에 참가한 조선사람들의 생활에서 어느 하루도 이 노래가 떠나본적이 없었다.

우주공간에 올려가는 음악곡들을 다 모아본다고 하여도 우리의 CNC노래처럼 제창빈도가 높은것이 없었을것이다.

노래 《돌파하라 최첨단을》은 우리 장군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중시하시는것으로 하여 급속히 전파되여 온 나라 인민이 사랑하는 노래로 되였으며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을 분발시키는데서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을 문명의 새로운 높이에 이끌어가는데서 CNC노래가 비상한 작용을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먹을 높이 드시면서 소리높이 웨치시였다.

《첨단을 돌파하라!》

김일성광장에서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때와 같은 우렁우렁한 음성이였다.

첨단을 돌파하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힘차게 부르신 이 구호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승리를 경축하는 가장 뜨거운 축사였다.

그것은 조선의 새로운 승리를 예고하는 장엄한 신호성이였다.

제 3 편
첨단에서 최첨단에로

CNC화에 한계단 더 박차를 가하여 다음고지에 올라가있어야 합니다.

김 정 일

변이 나는 해로 력사에 기록된 2009년이 장엄하게 저물어가던 어느 날이였다.

나라의 휘황한 전도를 펼쳐주시고 일군들과 헤여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문필가들을 부르시였다.

일군들뒤에 서있던 문필가들은 장군님께서 부르시는 바람에 《예!》하고 대답하며 그이 가까이에로 다가섰다.

중요한 글과제를 주실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최첨단을 돌파하는 글을 써야지?》

최첨단이라는 세글자에 특별히 력점을 찍으시는 말씀이였다.

문필가들의 머리속에서는 장군님께서 강조하신 최첨단이라는 그 말씀이 떠날줄 몰랐다.

문필가들을 보시기만 하면 《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를 자주 상기시켜주시던 그이께서 귀에 익은 《첨단》이라는 표현대신 《최첨단》이라는 표현을 류달리 강조하신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첨단에서 최첨단에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혁명의 목표가 세워져있었던것이다.

CNC 1만대, 그날은 멀지 않다

사나운 겨울이 자리를 비키고 눈석이가 시작되였다.

희천의 봄은 눈석이가 시작된 전평천의 물소리로부터 시작되는것 같았다.

드넓은 강물우에서 얼음이 쩡쩡 갈라져 나가는 모양을 구경하는것은 봄을 맞는 희천땅 아이들의 즐거운 생활이기도 하였다.

한여름철에는 벌거벗은채로 강물에 뛰여들던 아이들이 아직은 추운지라 솜옷을 입은채로 강가에서 뛰놀고있었다.

령너머 가까이에서는 희천발전소건설장의 혁신의 포성이 쿵—쿵— 울려오는듯 하였다.

가슴벅차고도 생동한 조국의 현실이 차창밖으로 흘러가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금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당시이름)으로 가고계시였다.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의 《련하》화문제를 제기하신 후부터 더욱더 관심이 쏠리는 곳이였다.

그간 공장에서 CNC공작기계를 얼마나 생산했는지, 주물공정은 어떻게 개변되였는지… 모든것을 직접 확인하셔야 했다.

장군님께서 타신 차가 주물직장앞에서 멈추어섰다. 낯이 익은 공장의 일군들이 정중히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현장으로 들어서시였다.

광장처럼 넓어진 현장이였다. 면적은 같은 면적인데 내용이 달라지니 갑자기 넓어져보인것이다.

《장군님, 여기가 원래 낡은 주물직장이였습니다. 나라에서 보내준 자금으로 현대적인 설비들을 사들여오고 일부는 자체로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시원하게 트인 현장을 보시면서 《오. 그래?》하고 기분좋게 응대를 해주시였다.

《저쪽선은 대형주물을 하는 조형선입니다. 그리고 이쪽선은 소형주물선입니다. 이렇게 두개의 흐름선을 놓았습니다.》

지배인이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는데 장군님의 눈길은 벌써 다른 곳에 돌려지고있었다.

《자체로 만든거요?》

현장의 한쪽에 세워놓은 CNC공작기계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였다.

《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련하기계〉와 합쳐주신 다음에 련하기계관리국과 협동하여 새로 만든 제품들입니다. 지금 CNC공작기계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배인의 목소리는 자부에 넘쳐있었다.

종합공장지배인은 한걸음 발전한 공장의 자랑을 터치고싶어 벙글벙글 웃음을 피우고있었다.

《장군님, 여기 주물직장에서 로동자들이 새까매서 일하였댔습니다. 그런데 장군님의 사랑속에 현대적으로 꾸려져서 로동자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주물이 진짜 〈마누팍뚜라〉였지.》

《예. 〈마누팍뚜라〉였습니다.》

《일을 많이 했소.》

지배인의 이야기에 즐겁게 응대해주시면서도 장군님의 눈길은 자꾸만 CNC공작기계가 있는 곳으로 쏠리고있었다.

드디여 그이께서는 이자 방금 보아주신 CNC공작기계가 있는 곳으로 다시 다가가시는것이였다. 주물직장의 현대화를 위하여 품을 많이 들이신 장군님께서 현대적인 주물설비들이 눈길을 끄는 현장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는것이 공장에서 새로 만든 CNC공작기계였던것이다.

그때 현장에 세워놓은 CNC공작기계는 불과 몇대뿐이였다. 하지만 이 공장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그 몇대가 장군님께 있어서는 천만금보다 소중하였던것이다. 장군님께서는 《련하기계》라고 쓴 그 기계들을 정답게 쓸어보시였다.

일군들은 눈시울이 축축해졌다.

CNC공작기계를 보실 때면 이름 못할 회억속에 잠기시는 장군님의 모습이 가슴을 후덥게 하였던것이다.

종합공장의 지배인이 조용히 말씀드리였다.

《련하기계관리국과 힘을 합쳐 만든 설비들입니다. 지금도 한창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CNC설비가 쏟아져나오게 되였습니다.》

지배인의 이 말이 꼭 마음에 드셨는지 장군님께서는 기계를 쓸어보시던 손을 멈추시고 머리를 돌리시였다.

《이것때문에 우리가 잘살수 있소.》

지배인이 한발자욱 더 가까이 다가서며 장군님께 아뢰였다.

《장군님, 공장의 현대화를 끝내면 거기에서 CNC가 쨍쨍 나올수 있습니다. 지금 기술력량이 준비되여있습니다.》

몸이 후리후리한 책임비서도 한마디 끼여들었다.

《장군님, 우리 공장에서 나가는 제품들은 다 〈련하기계〉라고 상표를 달았습니다.》

지배인이 또 말씀드리였다.

《이 기계들은 련하기계관리국과 합동하여 만든것입니다. 이것은 3축입니다. 지금 4축이 대기하고있습니다. 앞으로 4축, 5축, 6축까지 다하겠습니다. 첨단설비들을 다하겠습니다.》

지배인은 이렇게 결의를 다지면서 장군님께서 다가서시는 다른 CNC공작기계를 설명해드리였다.

《이것은 〈희천—5〉호선반을 개조하여 CNC화한 선반입니다. 수요가 높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다른 기계에로 다가가시였다.

기계를 한참동안 이리저리 훑어보시던 장군님께서는 **《질이 좋아졌소.》**라고 또다시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그곁에 서있는 키가 큰 설비를 또 보시였다. 전압주파수안정기였다. 기계의 상표를 보신 장군님께서는 기쁘신듯 말씀하시였다.

《이것도 〈련하기계〉로구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CNC설비를 운영하자면 《련하기계》에서 만든 이런 전압주파수안정기를 써야 한다고 당부도 하시였다.

《련하기계》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동감을 표시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우리 장군님의 《련하기계》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제일 값지고 훌륭한 우리것에 대한 열렬한 애착감인것이다.

이번에는 도의 책임일군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의 보고를 드리였다.

《장군님, 장군님의 령도로 이 공장에서 이제는 락후한 선반을 안하게 되였습니다.》

그 말에 지배인이 덧붙여 말씀드리였다.

《그전에 우리 공장에서는 재래식만능선반 1만대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우리도 CNC공작기계를 다량생산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머리속에서는 벌써 새로운 구상이 펼쳐지고있었다.

공장정문쪽의 드넓은 공지쪽에서부터 새 출발을 예고하는 건설의 동음이 울리고있었다.

《희천을 〈련하〉화하기를 정말 잘 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화폭이 봄의 서곡처럼 온몸에 와닿는것을 감각하시는듯 그이께서는 한껏 자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희천이 돈더미우에 올라앉게 되였습니다.

이제 어느때건 여기에서 CNC공작기계 1만대라는 말이 나올것입니다.

공작기계 1만대우에 CNC공작기계 1만대, 그것은 오래지 않은 래일입니다.

우리가 CNC노래를 짓기 정말 잘했소.》

(다음호에 계속)

혁명일화
승리의 표대

지난 3월 11일부 당보를 비롯한 중앙신문들의 1면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신념의 구호가 표대마냥 나붓기는 흥남가스화대상공사장을 배경으로 건설일군들과 함께 찍으신 사진이 실리였다.

비약과 위훈속에 흘러가는 선군조선의 시대상이 방불히 비껴있는 불멸의 화폭!

참으로 많은것을 이야기해주는 이 한상의 사진에도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우리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인도하시는 어버이장군님의 혁명철학이 뜨겁게 어려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흥남비료련합기업소 가스화대상공사장을 39일만에 또다시 찾으신것은 봄볕이 류달리 따사롭게 비치는 지난 3월 10일 아침이였다.

마감고비에 이른 공사장의 정경은 볼수록 장관이였다.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은 고층건물들과 백광을 뿌리며 줄줄이 뻗어간 배관들, 드넓은 공간을 메우며 빼곡이 세워진 거대한 탑들…

아침해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는 거창한 창조물들을 기쁨에 넘쳐 일일이 보아주시던 장군님께서는 1개월 남짓한 사이에 공사가 몰라보게 진척되였다고, 정말 큰일을 했다고, 웅장하게 일떠서는 새 공장을 보니 벌써 비료산이 보이는것만 같다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특히 우람찬 모습을 자랑하며 거연히 솟아있는 수소정제탑과 탄산가스흡착탑을 비롯한 최신기술에 기초하여 만든 거물설비들을 보고보고 또 보시며 통성의 영웅적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그처럼 짧은 기간에 이런 첨단설비들을 훌륭히 제작한것은 대단한 성과이라고 치하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공사장에 기폭처럼 나붓기는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구호에 시선을 두신채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통성의 로동계급은 우리 인민이 신념으로 간직한 저 구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믿음의 말씀을 받아안는 건설에 참가한 기업소들의 일군들은 어렵고 방대한 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하자니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고,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장군님께서 우리의 심장에 새겨주신 저 구호를 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고 주저없이 돌진하였다고 사실대로 보고올리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순간도 작업장을 뜨지 않고 치렬한 돌격전을 벌린 건설자들과 밤마다 건설장에 달려나와 공사를 지원한 가정부인들의 헌신적인 투쟁모습을 보면서 커다란 감동을 받은데 대해서도 말씀드리였다.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으시고 건설자, 지원자들은 모두가 견결한 투사, 열렬한 애국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장하고 기특한 그들의 불굴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들끓는 전투장과 기운차게 펄럭이는 구호를 다시금 바라보시며 감격에 넘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보시오, 얼마나 훌륭한 로동계급이요. 불가능을 모르는 우리 인민은 저 구호처럼 결심하면 그 어떤 과업도 반드시 해내고야맙니다. 우리 인민의 이 무적의 힘을 당할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우리 혁명은 필승불패입니다.》

장군님의 확신에 넘친 말씀을 숭엄한 심정으로 새겨듣는 동행한 일군들은 지난해 여름 완공된 대계도간석지에서 체험하였던 흥분이 자꾸만 되살아나 솟구치는 격정을 누를수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날 해풍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오랜 시간에 걸쳐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인 대계도간석지를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제방우에 큼직하게 새겨진 구호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를 보시면서 저 구호는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말과 같다고 하시며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의 영웅적투쟁을 추억깊이 회고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이 바라는것이라면 천만산악도 만리격랑도 단숨에 넘고 헤치는것이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의 힘이라고 하시며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혁명의 구호를 천만군민의 심장에 새겨주시였다. 그것은 시련의 폭풍속에서 단련되고 검증된 우리 인민의 정신력에 대한 믿음의 말씀이였고 조선인민의 슬기와 재능, 지적잠재력과 창조력에는 한계가 없다는것을 온 세상에 긍지높이 알리는 김일성민족의 장엄한 선언이였다.

조선의 결심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결심이며 그것은 곧 우리의 실천이고 승리라는것을 력사의 진리로 체감한 우리 인민이기에 강성대국건설대전의 격전장마다에 나붓기는 이 신념의 구호를 승리의 표대로 바라보며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고있는것이다. …

우리 인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에 의거하여 반만년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세기적위업을 이룩해가시는 절세의 위인을 우러르며 일군들이 가슴들먹이고 있는데 장군님께서는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가스화공정의 장쾌한 전경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정말 대단합니다. 1년반사이에 이처럼 방대한 공사를 끝낸것은 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속도이고 조선의 정신입니다!》

그러시고는 건설장을 떠나기 아쉬우신듯 오래도록 걸음을 옮기지 못하시다가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구호가 나붙어있는 공사장을 배경으로 우리모두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건설에 참가한 기업소들의 일군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의 미소가 그대로 어려서인가 붉은기폭에 아로새겨진 신념의 구호는 유난히 밝게 빛나고있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고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이 나래치는 투쟁의 구호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어버이장군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은 이 투쟁의 구호를 더 높이 들고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갈것이며 이 땅에 만복이 넘쳐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그렇다, 우리의 신념, 우리의 의지, 우리의 기상을 상징하는 구호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우리 혁명의 거세찬 진군을 추동하는 승리의 표대로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힘차게 나붓길것이다!

본사기자

사적물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김책시혁명사적관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변모되는 농장의 현실과 결부하여

천내군 로운협동농장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가슴속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고있다.

농장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이 어려있다.

농장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기념일을 비롯하여 여러 계기들을 리용하여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절세의 위인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군의 해발아래 전변의 새 력사를 맞이한 농장의 희한한 모습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마운 은덕을 심장에 새기도록 하는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얼마전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간 한 일군은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쉴참을 리용하여 그들에게 농장에 깃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나날이 변모되는 현실과 결부하여 실감있게 이야기해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한 농장원들은 고향땅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 보란듯이 꾸려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로농통신원 김득하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군중적이로

일판성있게 들어쥐고 내밀어

평천구역에서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평천구역의 일군들과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자들이 소비품생산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이들은 올해의 첫달에 평양시적으로 진행된 구역별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 사회주의경쟁에서 단연 우승의 영예를 떨치였다. 이 기간 구역에서는 월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계획을 169%로 넘쳐 수행하였으며 소비품의 품종수를 수십종이나 더 늘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은 군중적으로 내부예비를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고 그들의 창발성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게 하는 폭넓은 대중운동입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데서 기본은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최대한 발양시키는것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한 구역일군들은 소비품생산의 된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구역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구역인민위원회일군들은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에서 구역이 전국의 본보기단위로 언제나 앞장서도록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대중속에 깊이 심어주어 그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소비품생산조직과 지휘를 능동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온 구역이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으로 들끓게 하고있다.

구역에서는 올해에 들어와서도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리용하고 재능있는 가내작업반원들을 소비품생산에 적극 망라시켜 질좋고 값눅은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데 중심을 두고 일판을 벌려나가고 있다.

구역에서는 지난해보다 8월3일인민소비품의 품종수와 생산량을 1.5배이상 늘일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생산을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특히 원가와 수익성 등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사이의 리익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을 정하여 언제나 질좋은 소비품들로 직매점의 매대를 채우고 손님들이 흥성이게 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투쟁의 불길을 지펴주시였던 그때처럼 오늘도 평천구역직매점에는 값눅고 쓸모있으면서도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세소상품, 섬유제품, 가정용품 등 갖가지 소비품들이 차고넘치여 구역안의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구역당위원회책임일군들을 비롯한 구역안의 일군들은 늘 직매점에 나가 어떤 소비품들이 잘 팔리고 어떤 소비품들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가를 알아보고 제때에 생산대책을 세워주는 한편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동가내작업반, 가내생산협동조합들에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소비품생산을 늘여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대동강축전지공장 일군들과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자들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올해의 첫달 사회주의경쟁에서 우승의 영예를 떨치였다. 공장일군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늘 직매점에 찾아가 소비품의 질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인민들이 실지 요구하는 제품들에 대하여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적으로 생산해주는 원칙에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올해에 공장에서 새로 내놓은 충전등, 조리, 소랭이, 나사틀개 등은 값눅고 쓸모있어 대중의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평양양말공장에서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만든 갖가지 형태의 장갑과 이불솜도 주민들의 인기를 모으고있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 평양블로크공장, 평천부재공장을 비롯한 구역안의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쓸모없이 버리던 폐부산물을 리용하여 접철, 손수레, 침대 등 소비품생산을 늘이고 질을 높여 구역안의 주민들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켜나가고있다.

재능있는 가정부인들이 망라된 구역가내생산협동조합원들이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에서 앞장서고있다. 이들은 공예품, 놀이감, 포장끈, 신발닦개를 비롯한 80여종의 소비품들을 매달 정상적으로 직매점에 내놓아 호평을 받고있다.

구역직매점일군들과 봉사자들도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자기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봉사활동도 잘하고 리용생산반운영도 특색있게 하여 직매점을 늘 손님들로 흥성이게 하고있다.

오늘 구역안의 일군들과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자들은 김철의 신념, 김철의 본때, 김철의 실천력으로 대고조의 승리를 안아올 신심과 열정에 넘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명흥숙

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여

삼지연군에서

삼지연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군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소비품의 품종수를 2배로 장성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군중적운동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중요한 방침입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데서 다른 단위보다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고 볼수 없는 군에서 어떻게 올해에 들어와 생산에서 비약을 안아오게 되였는가. 그 비결은 군살림살이를 책임진 일군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그들을 인민소비품생산에로 적극 불러일으킨데 있다.

군의 책임일군들은 자주 직매점에 나가 어느 단위의 소비품의 질이 높으며 잘 팔리는가, 어느 단위에서 새 품종을 개발하였는가를 알아보고 제때에 총화평가해주는 사업을 잘하고있다. 한편 올해에 들어와 두차례의 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를 통하여 앞선 단위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였다.

군책임일군들은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에서 앞선 단위들에 대한 참관을 조직하여 좋은 경험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사업도 놓치지 않고 진행하고있다.

군에서는 나무가공부산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일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도록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계발시키고있다. 그리하여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8월3일인민소비품을 질적으로 생산하도록 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활발히 벌린 결과 많은 가내작업반들이 새로 생겨나고 소비품생산자대렬이 늘어났다.

삼지연군기념품공장을 비롯한 군안의 많은 단위들이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군안의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자들은 갖가지 산나물가공품들과 옷걸이, 사진액틀 등 나무가공제품을 적은 원가를 들이면서도 특색있게 만들어 군안의 주민들과 혁명전적지답사자들에게 봉사해주고있다. 특히 리명수로동자구 가내작업반원들이 공동사설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여러가지 소비품을 많이 생산하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주민들이 덕을 본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생필분공장에서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생필분공장에서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여 주민들이 덕을 보게 하고있다.

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올해에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넉넉히 마련해놓고 소비품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독을 비롯한 갖가지 토기제품들과 종이제품들은 검덕지구 주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있다. 자기 고장에 풍부한 원료로 토기제품생산공정과 종이생산공정을 품들여 꾸려놓은 이들은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생산을 늘이고있다.

분공장에서 생산되고있는 청기와도 질이 좋아 검덕지구 주민들속에서 수요가 높은 제품으로 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불타는 열정을 안고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청기와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유약을 자체로 개발하였다. 그리하여 광택이 나면서도 굳음세기가 대단히 좋은 청기와를 많이 생산하고있다. 분공장에서는 가구생산기지도 꾸려놓고 질좋은 가구를 생산하고있으며 생산단위들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삽을 비롯한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고있다.

자기 고장에 흔한 원료와 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소비품을 마음먹은대로 팡팡 생산하고있는 분공장을 가리켜 검덕지구 주민들은 보배공장이라고 부르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먼저 찾은 성공의 열쇠

황해제철련합기업소 3대혁명소조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3대혁명의 전위, 투쟁의 기수들이며 우리 당의 핵심력량입니다.》

황철의 기술집단앞에 내화물생산을 위한 1000t프레스성형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해야 할 무거운 임무가 나섰을 때였다.

이것을 3대혁명소조원들이 맡아나서자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만큼 어려운 과제였던것이다.

사실 1000t프레스성형공정의 현대화는 이미전부터 소조원들이 벼르던 기술혁신과제였다.

그러나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이 너무도 아름차 선뜻 나서지 못하고있었다. 하지만 총공격전의 해인 올해 과학자, 기술자들이 두뇌전, 기술전을 맹렬하게 벌려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내놓을데 대한 공동사설과 김철의 호소가 소조원들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던것이다.

하다면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이 기술혁신과제를 소조의 힘으로 완성할수 있는 방도는 무엇이겠는가.

이 문제를 놓고 소조책임자 최광철동무는 생각이 깊었다.

(물론 어려운 과제이다. 소조가 지난 기간 수행한 기술혁신과제들도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였다. 누구나 처음에는 불가능하다던 과제들이였다. 하지만 그 모든 기술혁신과제들을 훌륭히 해제끼지 않았던가.)

그러는 그의 눈앞에 새삼스럽게 안겨드는 모습들이 있었다.

강철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전극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혁신이 벌어지던 때와 석탄가스화에 의한 레루강생산공정을 완성하기 위한 기술혁신이 진행되던 때 서로 돕고 이끌면서 혁명적동지애와 집단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제기된 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던 김철남, 정명철동무를 비롯한 소조원들의 미더운 모습이였다.

순간 소조책임자의 머리속에 번개같이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우리 식의 우월한 창조방식인 집단주의의 위력!

바로 그것이였다. 집단이 달라붙으면 아무리 높은 과학기술의 요새라도 무슨 큰 문제이겠는가. 콤퓨터분야는 물론 기계공학에도 박식한 소조원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동무들의 뜻도 마음도 재능도 합치자.)

소조의 재능있는 동무들로 중점과제를 수행할수 있는 기술혁신력량을 뭇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면서 기타 생산에서 제기되는 다른 기술적문제들도 동시에 밀고나가자는 소조책임자의 의견은 소조원들의 협의회에서 전적인 찬동을 받았다.

련합기업소당조직에서도 그들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이렇게 되여 련합기업소기술협의회에서 기업소의 유능한 기술자들이 그들을 도와줄데 대한 문제도 토의되였다.

—우리는 당에서 믿고 내세워준 황철의 3대혁명전위들이다. 최첨단을 돌파하는 첫번째 열쇠는 집단주의에 있다.

앙양된 3대혁명소조원들의 열정과 축적된 재능이 합쳐지니 무서운 힘이 폭발되였다.

새 기술혁신에 달라붙은지 얼마 안되여 소조원들은 1000t프레스의 자동조종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술혁신과제뿐만아니라 소조원들은 철강재생산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가치있는 기술혁신과제들을 완성함으로써 새해의 첫걸음도 큼직하게 내짚었다.

이렇듯 그들은 어려운 기술혁신과제수행에서 집단주의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여 기술혁신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고있는것이다.

그렇다. 기술전, 두뇌전에서도 집단주의위력이 기본이다.

이것이 그들이 과학기술적문제에 앞서 먼저 찾은 성공의 열쇠였다.

본사기자 채인철

혁명의 수도 평양의 불야경을 그리며 불길굴공사를 다그치자고 호소한다.
—희천발전소건설 룡산려단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청춘과원에 나래치는 혁신의 기상

고산과수농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현대적인 대규모 과일생산기지로 전변되고있는 고산과수농장에 봄기운이 약동한다. 드넓은 과수밭을 뒤덮을듯 날마다 늘어나는 거름더미들과 분장마다에 산같이 쌓여있는 소석회더미들에는 올해 과일생산계획을 기어이 넘쳐 수행할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정이 비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일농사를 잘하자면 과수밭들에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는것과 함께 과일나무의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고산과수농장을 현대화된 청춘과원으로 꾸리시려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울이신 사랑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영광의 과수원에 희한한 사과바다를 펼쳐놓을 일념으로 떨쳐나선 농장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기세는 드높다.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과수원 정보당 거름은 수십t이상 실어내면서 수천t의 소석회와 많은 흙보산비료를 생산하려는것이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세운 목표였다.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졌다. 열두바닥파기를 다그치는 근로자들, 과수원으로 연방 떠나는 뜨락또르행렬…

아직은 찬기운이 가셔지지 않았건만 가슴마다 불덩이를 안고사는 이곳 근로자들의 얼굴에서는 구슬땀이 흘러내렸다.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에 거름생산에서 제일 높은 실적을 기록한 제10작업반원들의 경쟁열의는 또 얼마나 높은가.

지난해 과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긍지안고 올해 과일농사작전을 더욱 치밀하게 세운 제2작업반장 심상일동무의 일욕심도 간단치 않지만 다른 초급일군들의 잡도리 역시 만만치 않았다. 생활에서는 언제나 다정하지만 일에 들어서서는 양보를 모르는 경쟁자들인 제1, 3, 4작업반원들이 유기질비료생산경쟁을 하였다는 이야기는 감동적이였다. 어떻게 하나 올해 과일농사에서는 농장적으로 단연 앞서겠다는 야심을 품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유기질비료생산을 드세게 내민 제13작업반장의 일본새도 자랑할만 하였다.

이들만이 아니다. 여러 분장의 작업반들에 가보면 높이 세운 거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자랑을 들을수 있다.

올해 과일농사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농기계수리정비를 품들여 한 운수작업반원들, 식물성농약생산계획을 1.5배로 넘쳐 수행한 위북분장 제1작업반원들…

날이 갈수록 혁신자대렬은 늘어만갔다. 천지개벽된 청춘과원에 희한한 사과바다를 펼쳐놓을 열정안고 근로자들모두가 대혁신, 대비약을 창조하고있다.

비약이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선구자들이 있기마련이다.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이라고 한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떨쳐나선 최종수동무를 비롯한 농장일군들의 째인 조직사업과 이신작칙은 작업반, 분장들마다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게 한 말없는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받들고 과학농사대책을 면밀히 세워가는 김성룡동무를 비롯한 기술일군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미더운것인가. 토양분석표를 놓고 지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느라, 고산땅의 기후조건에 맞게 일정계획을 세우느라, 합리적인 비배관리방법을 확정하느라 이들은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오늘도 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올해 과일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할 열의드높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황연옥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 최충성 찍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열어나가는 지름길

2중3대혁명붉은기 연안장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연안장공장은 크지 않은 지방산업공장이다. 하지만 공장은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과정에 크게 소문났다. 선군시대 맞이 나게 면모가 일신된 여러동의 생산건물과 원림화가 잘된 공장구내도 볼만하지만 자체의 힘으로 현대적인 설비들을 제작설치하고 장생산공정의 현대화와 경영활동의 콤퓨터화를 실현한것을 보면 감탄을 금할수 없다. 모든것이 높은 수준이다. 그 비결에 대하여 알고싶어하는 우리에게 지배인 정덕일동무는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완강하게 돌진해온데 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력갱생은 오래고도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시종일관 견지하여온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구호입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 확고히 서서 풀어나간 초급당위원회사업은 주목을 끌고있다.

수백㎡에 달하는 생산건물과 공공건물을 개건할 높은 목표를 내세웠을 때였다. 수천t의 모래와 세멘트가 필요하였다. 로력도 엄청나게 들것이였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걱정부터 앞세웠다. 하지만 지배인은 배심이 든든하였다. 당장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서가 아니였다. 공장앞에 어려운 과업이 나설 때마다 대중운동을 통하여 풀어나가는데 습관된 그는 제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반드시 해낼수 있다고 확신하였던것이다. 조건을 론하기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배짱을 가지고 결의목표수행에 주저없이 달라붙는 지배인의 주동적인 립장과 자세는 종업원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 초급당위원회는 그 공사를 공장자체의 힘으로 해제낄것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에 반영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방법론있게 벌려나갔다.

초급당위원회는 우선 앞선 단위들에 대한 참관사업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열의를 높여주었다. 도안의 여러 기초식품공장들에 대한 참관사업이 끝났을 때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종업원들속에서 참관사업에서 보고 듣고 느낀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앞선 단위들의 좋은 경험을 적극 따라배우면서도 할바에는 더 우월하게,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하겠다는 일욕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실효는 컸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힘으로 난관을 타파해나갈 신심이 보다 확고히 자리잡히게 되였다.

—남들이 걸은 백걸음을 우리는 한걸음에 뛰여넘자.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런 투지를 안고 떨쳐나 건물들의 개건공사를 짧은 기간에 해제끼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기술혁명결의목표실현에서 기술자들의 창조적능력이 남김없이 떨쳐지도록 적극 떠밀어준것은 이곳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의 하나이다.

장생산공정의 콤퓨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던 때였다.

출하공정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어느 한 장치의 제작문제를 놓고 열린 협의회에서는 론의가 분분하였다. 공장의 기술력량을 따져볼 때 수입에 의존하는것이 빠른 길이라는것이 적지 않은 사람들의 주장이였다. 이런 때 행정경제일군들이 어떤 립장을 견지하는가 하는것은 결의목표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것을 잘 알고있는 지배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물론 수입에 의존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택하지 맙시다. 남들이 해내는데 우리라고 왜 못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공장기술자들을 믿습니다.》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충만된 그의 말은 협의회참가자들에게 커다란 자각을 안겨주었다.

기술준비실 실장 장윤식동무는 공장에서 25년간 일해오는 재능있는 기술일군이다. 그가 우에서 이야기된 장치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겠다고 결의해나섰을 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적극 지지해주었다. 때로는 기름묻은 작업복을 입고 한밤을 지새우며 조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한 도서들도 구해주면서 기울인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마음은 그의 사업을 크게 고무하였다. 그는 평양기계대학 연구사들과 합심하여 짧은 기간에 그 장치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이 사실을 통하여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결의목표실현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기게 되였다. 이 기세로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경영활동의 콤퓨터화를 실현하고 랭착유기에 의한 기름생산방법을 받아들여 생산성을 2배로 높이였다.

최근 연안장공장에서 생산되는 기초식품들은 질이 높아 주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특히 장은 조선장의 고유하고 독특한 맛을 그대로 보존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전국기초식품전시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초급당위원회가 기초식품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 깊은 관심을 돌리게 된 계기가 있었다.

어느날 작작업반에 내려갔던 초급당일군은 장의 질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사실에 주의를 돌리였다. 상점들에서 묵을새없이 제꺽제꺽 팔린다고 하지만 결코 소홀히 여길 문제가 아니였다.

—제품의 질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인민에 대한 복무관점과 관련한 문제이다. 모든 기초식품을 늘어나는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생산해야 한다.

문제를 이렇게 본 초급당위원회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에 기초식품의 질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새롭게 보충하였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전개해나갔다.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간것은 주목된다. 매주 한번이상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학습을 조직하도록 한것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특히 경공업과학분원 연구사들을 초빙하여 진행하도록 한 강의는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생동한 대답을 준것으로 하여 청강자들속에서 인기를 끌었다.

공장에서는 두달에 한번씩 전체 종업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품품평회가 진행되군 한다. 목적은 기초식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찾고 이 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게 하자는데 있었다. 주목되는 점은 평가사업에 일군들만이 아니라 모든 종업원들이 참가하게 한것이다. 이렇게 하니 평가사업에서 공정성이 보장되게 되였다.

제품의 질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진행되는 제품품평회를 통하여 종업원들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을 더욱 굳게 가지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마당에 적극 뛰여들게 되였다. 자력갱생의 열풍이 휘몰아치는 속에 공장은 지난 3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선군봉화상쟁취를 위한 사회주의경쟁공동순회우승기를 두차례에 걸쳐 수여받는 자랑을 떨치였다. 제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승리한다는 배짱을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실현을 위한 지름길을 과감히 열어나가고있는 이곳 초급당위원회사업은 혁신적이다.

본사기자 손영희

스스로 찾은 일감

신원군 장금농장 제6작업반장 김창덕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상이 발동되면 모든것이 풀릴수 있으며 어디에서나 예비가 쏟아져나오고 앙양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신원군 장금농장 제6작업반에서 김창덕동무가 반장사업을 시작하던 때였다.

작업반의 공공건물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응당한 수준에서 꾸려지지 못한것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작업반의 모든 건물들을 선군시대의 맛이 나게 새로 꾸릴 결심을 터놓았을 때 작업반원들의 의견은 한결같지 않았다. 난알보관관리를 위해 강냉이창자부터 손을 대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집짐승우리와 함께 우물공사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건설자재가 많아서 이 모든 일감을 동시에 밀고나갔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이 김창덕동무의 가슴에 밀물처럼 차올랐다.

하지만 작업반의 형편에서 이 모든 일감을 동시에 밀고나갈수는 없었다. 어느 일감부터 시작할것인가를 생각하던 그는 작업반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부터 일떠세우기로 결심하였다. 김창덕동무는 작업반원들을 위한 대중교양의 거점부터 일떠세워야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문화정서적으로 철저히 준비시켜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였기때문이였다.

그의 이런 속깊은 마음을 알게 된 작업반당조직에서는 그의 사업을 적극 떠밀어주었다. 작업반원들모두가 한마음이 되여 그의 뒤를 따라나섰다. 없거나 모자라는 자재가 적지 않았다. 이런 형편에서 건설이 좀 늦어진다고 탓할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김창덕동무는 작업반원들이 잘 꾸려진 대중교양장소에서 생활할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려고 밤잠도 잊고 뛰여다니였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작업반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을 잘 꾸려놓을수 있게 되였다.

이렇게 작업반에서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부터 일떠세웠기에 작업반원들은 우리 당의 선군사상과 농업과학기술지식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문화정서생활도 하면서 공공건물들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과 농사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그러니 그가 일감선택을 얼마나 잘한것인가.

조현철

참된 일군의 삶의 보람과 희열

선군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의학과학원 약학연구소 소장 윤영희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비록 힘이 들고 난관이 많다 하더라도 앞날을 생각하며 용감하게 돌진하는 일군이라야 신념이 있고 주체의 인생관이 선 일군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1999년 9월 윤영희동무는 약학연구소 소장으로 임명받았다. 그전까지 그는 연구소의 평범한 연구사였다.

지난 기간 자질향상과 연구사업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윤영희동무였으나 의약품연구밖에 모르는 연구사이고 더구나 녀성인 자기가 연구소소장으로 임명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었다.

가슴벅차게 당의 신임을 받아안고 몸둘바를 몰라하는 그에게 한 책임일군은 모든 연구사들을 과제수행에로 조직추동하는 과학기술행정사업은 혼자서 진행하는 연구사업보다 몇배로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무해주었다.

《처음 해보는 일이니 한동안은 힘이 들것입니다. 그럴수록 당정책을 튼튼히 틀어쥐면 길이 열리고 성과가 이룩될것입니다.》

당정책은 과학연구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자막대기라고 하던 일군의 말을 새기며 윤영희동무는 연구소로 돌아왔다.

당시 다른 건물로 옮겨온지 1년도 안된 연구소는 아직 정돈되지 못한 상태였다. 더우기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여서 일부 사람들은 꾸리기와 연구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가는것은 어려울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윤영희동무는 주춤거리지 않았다. 그는 매일 연구실들을 돌면서 연구사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연구소사업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그처럼 어렵던 시기였지만 그는 희망과 신심에 넘쳐 일하면서 연구소에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하부구조망을 꾸리고 실험대며 시약, 기구들을 갖추는 사업을 전투적으로 진행하였고 동시에 새롭고 의의있는 연구과제들도 내놓았다.

그런 소장을 두고 연구사들은 저마다 놀라와하면서 우리 소장은 고난이나 시련같은것은 안중에 두지 않는 의지가 강한 일군이라고 감탄하군 하였다.

늘 연구사들속에서 살면서 어떤 어려운 과제가 제기되면 무작정 맡아안고 밤이건 낮이건 가림없이 길을 떠나는 자기에게 연구사들이 건강을 걱정하는 말을 할 때마다 윤영희동무는 이렇게 대답하군 하였다.

《저야 약학연구소사업을 책임진 사람이 아닙니까. 당이 바라는대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효능높은 의약품들을 더 많이 개발할수만 있다면 이런 길을 얼마든지 걷겠습니다.》

그런 윤영희동무를 누구나 존경과 믿음이 실린 눈길로 바라보군 하였다.

윤영희동무는 그럴수록 연구소를 더 잘 꾸리고 연구과제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썼다. 걸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시로 먼길을 걷기도 하였고 어떤 때에는 훌륭한 연구종자를 탐구하기 위해 연구사들과 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그라고 어찌 힘들지 않았으랴. 하지만 그는 항상 당정책의 운명이 일군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였으며 새로운 의약품들을 연구개발하고 그것을 제때에 도입할데 대한 당정책을 결사관철실천하는 소장이였던것이다.

지난 기간 약학연구소는 천연항암제와 항산화제를 비롯한 수십종에 달하는 갖가지 효능높은 의약품들을 많이 연구개발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에는 오직 당의 사상과 로선을 사업과 생활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당정책의 요구대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의약품연구개발을 위한 높은 목표를 내걸고 그 도입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마음쓰며 실천행동으로 연구집단을 이끌어온 윤영희동무의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노력이 크게 깃들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흥남제약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에 접하여 온 나라 의학자들이 커다란 흥분과 격정에 휩싸여있던 때였다.

윤영희동무는 고전적인 고려약처방에 필수불가결한 중요약재를 연구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설계하고 그 실천에 나섰다.

사실 며칠전 그는 자기를 찾아온 연구소의 한 오랜 연구사로부터 전통적인 고려약처방에 있는 약재를 제조하자는 의견을 받게 되였다. 그때 윤영희동무는 심한 자책감이 온몸을 휩싸는것을 느꼈다.

대대로 전해오는 우리 나라의 고려약처방의 전통적인 약효를 믿음직하게 보장하는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 약재제조는 사실 헐한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현실은 천연약재와 꼭같은 그 약재를 우리 식으로 연구개발해낼것을 요구하고있었다. 윤영희동무는 그것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길이며 약학연구소 소장으로서 자기가 응당 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곧 오랜 연구사와 함께 필요한 대책을 토론한 다음 당조직앞에서 이렇게 결심을 다지였다.

《백두산위인들의 은정속에 성장하여온 약학연구소가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겠습니다.》

오랜 연구사를 중심으로 여러 연구실의 능력있는 연구사들을 연구개발성원으로 선발한 윤영희동무는 그들의 사업을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늘 연구사들을 고무해주고 과제진척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장사업을 예견성있게 따라세워 연구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게 하였다. 확대실험에 없어서는 안될 긴요한 실험자재도 그는 스스로 맡아나서 해결하였다. 오랜 연구사를 비롯한 연구개발성원들은 그때마다 역시 소장은 생각하는 품도, 실천하는 품도 대담하다고 감탄하군 하였다.

《그래서 소장이 있는게 아닙니까.》

윤영희동무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속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연구사들을 전국의 수많은 고려약생산단위들에 내보내여 의약품생산을 과학기술으로 적극 떠밀어주고 과학연구성과를 생산실천에 도입하기 위한 조직사업과 조건보장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려온 그의 대담하고 진취적인 사업방법과 기풍이 다 담겨져있었다.

지난 10여년동안 의학과학원 약학연구소는 훌륭한 연구성과들을 이룩하여 나라에 많은 리득을 주었다. 더욱 귀중한것은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일에 한몸 깡그리 바쳐 끝끝내 천연항암제를 만들어내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리희숙동무와 사람들이 범상하게 여기던 공업부산물로부터 새로운 효능높은 영양수액제를 연구개발하여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안은 김명심동무와 같이 실력있는 연구사들이 이곳 집단에서 수많이 자라난것이다.

연구소에서 새로운 연구성과를 거두고 학위학직소유자들이 늘어날 때마다 윤영희동무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리군 한다. 그것은 그의 삶의 보람이고 희열인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치곤

윤영희동무(앞줄 가운데)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출판소에서

혁신적인 안목으로 일판을 벌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교육사업이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교육부문에서 제기되는 물질적수요는 방대한 규모로 늘어나고있으며 교육조건에 대한 요구수준도 더욱 높아지고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출판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최근년간 출판인쇄공정을 대담하게 개조하여 각종 교과서, 참고서들의 내용과 형식을 일신하고 그 종수와 부수를 훨씬 늘이는 등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그속에는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혁신적인 안목으로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온 이들의 불같은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지식갱신주기가 짧아지고 가치있는 정보자료량이 늘어나고있는 오늘날 교재와 참고서에 최첨단과학기술성과들을 제때에 반영하고 그것을 많은 종수와 부수로 찍어내는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자각과 높은 책임감을 안고 소장 안창인동무는 교재와 참고서의 종수와 부수를 늘이기 위한 목표를 내걸고 생산건물개조와 설비현대화를 동시에 밀고나갔다.

당세포비서 홍경철동무를 비롯한 모든 종업원들이 현대화공사를 빠른 기간에 끝내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합치였다.

교재와 참고서의 종수와 부수를 늘일수 있는 물질적토대가 갖추어진 다음에는 인쇄물들의 질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다시 전투를 벌리였다.

편집원 오분옥동무가 교원, 학자들의 집필원고에 최신성과자료가 더 많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때 인쇄공 박광일동무는 인쇄물의 질을 높이며 기대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해 애썼다.

그전에는 글로 전개하던 부분을 그림으로 출판해주니 좋다고, 최신의학기술자료들을 반영하여 집필하는족족 신속정확히 출판해주니 강의하기도 좋고 학생들의 인식속도도 빨라진다고 림상제2의학부, 기초의학부, 고려의학부 등 많은 학부들에서 호평이 들려오자 일부 종업원들은 그것으로 만족해하였다.

그때 소장은 우리가 찍어내는 교재나 참고서를 리용한 사람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는 훌륭한 의학과학성과를 내놓을 때라야, 전국의 의학부문 대학들과 연구기관들에서도 우리가 찍어낸 책들을 가치있다고 보고 리용하게 될 때라야 비로소 마음놓을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의 말은 교재와 참고서들을 많이 찍어내는것으로 만족해하던 종업원들을 또다시 분발하게 하였다.

이들에게서 성과의 기준은 단지 자기 단위에서 세운 목표의 도달만이 아니였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언제나 발전하는 현실과 리용자들의 립장에서 자기 사업에 대한 요구성을 부단히 높이고 혁명적으로 실천해나가고있다.

성과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새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며 해당 단위의 사업성과도 크게 차이난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기 사업에 대한 요구성을 부단히 높이며 계속 혁신해가고있다.

백성근

평범한 하루에 비낀 모습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기대공 김희동무와 그의 가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누가 보건말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생을 빛나게 사는 사람입니다.》

희천발전소건설장으로 보낼 또 하나의 소재가공을 끝낸 발전설비1가공직장 타닝공 김희동무는 교대를 앞두고 기대인계인수일지를 펼쳐들었다.

그날도 생산계획을 200%로 넘쳐 수행한 그는 일지에 기대상태를 깐깐히 적어넣었다. 날마다 반복하는 일이고 더우기 아들에게 하는 인계였지만 작업교대준비를 하는 그의 일본새는 수십년전 로동생활을 시작할 때처럼 변함이 없었다.

일지의 갈피들을 번지는 오랜 타닝공의 주름진 눈가에 미소가 실리였다.

아들이 고급기능공으로, 일을 제끼는 제대군인작업반장으로 소문났건만 그에게 늘 왼심을 쓰는 김희동무였다.

그가 어엿하게 성장한 아들의 모습을 그려보고있을 때 안해가 아들을 앞세우고 작업장에 나타났다. 안해의 손에는 밥꾸레미가 들려있었다.

《로친은 왜 또…》

김희동무의 입에서는 반가운 생각과는 달리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령감두 참, 후방을 맡은 나도 힘껏 내달려야 우리 타닝반이 더 용을 쓸게 아니요.》

요즈음 작업을 끝내면 직장에 새로 들어온 로동자들의 기능을 높여주기 위하여 퇴근도 미루고 때식도 잊군 하는 남편의 속마음을 잘 아는 안해였다.

(우리 타닝반이라…)

김희동무는 안해의 그 말이 참 듣기 좋았다. 실로 그랬다. 타닝반은 친자식처럼 정이 든 기대였다. 김희동무의 수십년간의 로동생활이 비껴있고 온 가족의 구슬땀이 슴배여있는 기대, 거기에 두해전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축복까지 안겨지지 않았던가.

2년전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희동무의 작업모습을 오래도록 보아주시였다. 그때부터 김희동무는 물론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타닝반이 더더욱 자기 몸의 한부분처럼 여겨졌다.

우리 장군님께서 보아주신 타닝반에서는 기적과 혁신만이 이룩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만가동을 위해 김희동무와 그의 아들 김경영동무 그리고 온 가족이 기울인 노력과 지성은 그 얼마였던가.

그래서 언제나 증산의 동음높은 타닝반이다. 직장적으로 계획을 남먼저 수행하군 하는 그들 부자의 혁신도 정든 타닝반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김경영동무는 기대옆에 지고온 배낭을 내려놓았다. 그속에는 새 공구, 지구들과 장갑들이 들어있었다.

《아니, 언제 이걸 다…》

김희동무가 어제밤 아들과 작업교대를 하면서 더 많은 소재를 가공하자면 몇가지 공구와 지구들을 새로 갖추어놓아야겠다는 말을 얼핏 비쳤댔는데 김경영동무가 교대를 마친 길로 유휴자재들을 가지고 선반공들을 찾아가 새 공구들을 만들어온것이였다. 김희동무의 안해 역시 밤을 새우며 직장종업원들에게 줄 로동장갑을 수십켤레나 만들었다.

잠시후 김희동무는 기대가 힘차게 돌아가는 소리를 즐겁게 들으며 신입로동자들이 일하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오늘도 그들의 일손을 도와줄 작정이였다.

김희동무에게 있어서 그날은 또 하루의 평범한 로동일이였다. 하지만 거기에는 뜨겁게 비껴있었다.

2월말에 상반년생산계획을 수행한 기세로 5월까지 년간계획을 완수할 결의를 안고 생산돌격전의 앞장에서 서 대고조의 나날을 불같이 살아가는 대안땅의 한 부자기대공과 그 가정의 모습이.

본사기자 정성일

봄철나무심기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

열렬한 향토애를 지니고

강계시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국을 수림화, 원림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는것입니다.》

강계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열렬한 조국애, 향토애를 지니고 봄철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 2일 하루동안에만도 연풍혁명사적지를 비롯한 여러 혁명사적지들과 시내중심의 곳곳에 많은 나무를 심었다.

장자산혁명사적관의 일군들과 강사들은 자체의 힘으로 꾸려놓은 나무밭에서 마련한 수백그루의 나무를 장자산혁명사적지의 곳곳에 정성껏 심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4월말까지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시내중심의 여러 지구들과 공원들에 심어 시를 록음이 우거진 공원속의 도시로 더 잘 꾸릴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일군들은 시안의 단위들에 나무심기과제를 명백히 주고 질좋은 부식토를 마련하여 봄철나무심기를 질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도시경영부문 일군들은 기관, 기업소, 동, 인민반들에 나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나무의 사름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잘 알려주면서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있다.

시원림록화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기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시안의 수많은 단위들에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나무모의 사름률을 높이자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무 심을 구뎅이를 기술규정의 요구에 맞게 파고 물을 줄데는 물도 주면서 나무 한그루한그루를 정성을 담아 심어야 합니다.》

봄철나무심기에서는 나무모의 사름률을 높이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봄철에는 가물이 시작되고 땅이 녹는 정도가 해비침률에 따라 서로 다르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같은 지역에서도 남쪽경사면들에서는 북쪽경사면들보다 10~15일정도 땅이 먼저 녹는다고 한다.

때문에 봄철에는 땅이 먼저 녹는 남쪽경사면들에서부터 나무를 심어야 사름률을 높일수 있다. 이런것을 고려하여 봄철나무심기는 기본적으로 3월중에 끝내야 하며 고산지대인 경우에도 4월 중순이나 말까지는 끝내야 한다.

봄철에 심는 나무모의 사름률을 높이자면 다음의 문제들에도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우선 나무모의 잔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잔뿌리가 상한 나무모들은 제대로 살수 없다. 그러므로 양묘장에서 나무모를 뜰 때부터 잔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하는데 첫째가는 주의를 돌려야 한다.

나무모의 운반과 보관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나무모의 잔뿌리는 직사광선과 봄철의 건조한 바람을 맞으면 인차 죽기때문에 나무모를 운반할 때에는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진흙물을 바르고 물에 적신 가마니나 비닐박막같은것으로 잘 감싸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나무심기를 기술적요구대로 하는것이다.

나무모구뎅이의 크기는 수종과 토양조건 등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나무모의 뿌리가 충분히 들어갈수 있게 하는 원칙에서 정해야 한다. 구뎅이를 팔 때 영양성분이 많은 겉층의 흙과 속층의 흙을 따로 무져놓아야 한다.

나무모를 심을 때에는 먼저 겉층의 흙과 일정한 량의 부식토를 구뎅이밑에 깔고 그우에 뿌리가 고루 펴지도록 나무모를 놓는다. 다음 속층의 흙을 채우고 잘 밟아주면서 본래의 땅에서보다 2~3cm정도 더 올라가도록 나무모에 흙을 덮어주고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나무심는 작업이 끝나면 구뎅이우에 나무잎이나 넙적한 돌, 비닐박막같은것을 덮어주어 땅속물기가 날아나는것을 막아야 한다.

나무모를 심은 다음에는 나무가 죽지 않도록 관리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과학원 산림과학분원 강은섭

많은 참대나무를 심었다

해주시에서

해주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봄철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많은 나무를 심고있다.

최근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시의 입구로부터 중심에 이르는 수십리도로 량옆을 따라 많은 참대나무를 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무엇보다도 나무를 많이 심고 그 관리를 잘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시에서는 올해 식수절을 계기로 어버이수령님의 은정속에 여러곳에 무성한 숲을 펼친 참대나무를 시의 도로량옆에 심을것을 계획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급, 시급기관, 기업소들과 공장들에서는 짧은 기간에 참대나무심기를 와닥닥 끝내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그리고 참대나무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나무의 사름률을 높이게 하였다.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대나무심기에 떨쳐나 한그루, 한그루 정성껏 심었다.

시안의 여러 기관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해주시 중심광장주변의 도로옆에,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은 휴식일에 광석천주변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의 도로옆에 참대나무를 정성들여 심었다.

이들은 이미 자라고있는 가로수와 참대나무사이의 간격을 적절히 보장하면서 도시의 건물들과 도로, 가로수가 조화를 이루어 립체감이 나게 하는데도 관심을 돌리였다.

기관,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 동, 인민반주민들, 학생들은 불타는 향토애를 안고 떨쳐나 단 며칠사이에 수만그루의 참대나무를 심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리승철

꽃처럼 한생을 아름답게

락랑구역 락랑2동 11인민반 리춘실녀성

우리가 리춘실녀성의 가정을 찾은 날 밖에서는 눈꽃이 날리고있었다. 그러나 방안에는 꽃향기가 넘치고있었다. 손자들과 함께 꽃을 가꾸던 리춘실녀성은 손에 꽃삽을 쥔채로 우리와 마주앉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보람있는 생활은 사회적집단을 위하여 사는 생활입니다.》

해방전 그는 꽃을 사랑하면서도 멀리하군 하였다. 꽃만 보면 눈물이 났던것이다. 봄에 산과 들에 피여났다가 가을이면 찬서리에 시드는 꽃이 마치도 세상에 태여나 꽃처럼 피여야 할 녀성들이 나라를 잃은 망국노가 되여 어머니나 자기처럼 가난과 구박속에 죽지 못해 살아가는 모습과도 같아보여서였다. 마을사람들은 그런 소녀를 두고 꽃을 보며 우는 아이라고 하면서 한숨을 짓군 하였다.

해방후에야 그는 진정으로 꽃을 사랑하기 시작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그도 마침내 꽃처럼 피여날수 있었던것이다. 그에게는 산에, 들에 활짝 피는 일만꽃이 다 자기의 행복한 모습처럼 비쳐왔다.

그는 고마운 제도를 꽃에 비겨 자랑하고싶어, 사람들의 생활에 아름다움과 향기를 더해주고싶어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부지런히 꽃을 심고 가꾸었다. 이런 그를 두고 사람들은 그가 처녀이던 때에는 《꽃처녀》라고, 그가 가정을 이룬 후에는 《꽃어머니》라고 불렀다.

그의 보람찬 로동의 나날도, 행복넘친 생활의 하루하루도 꽃과 함께 흘렀다.

세월이 흘러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였어도 꽃을 가꾸며 사는 그의 생활은 변함이 없었다. 식솔많은 가정의 주부였지만 하루도 중단없이 꽃을 가꾸었다. 겨우내 집에서 꽃을 키워 이른봄이면 인민반의 꽃밭에 내다심었고 국가적기념일이나 명절날에는 정성껏 키운 꽃들을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찾아가는 마을사람들과 주변학교학생들에게 안겨주군 하였다.

꽃처럼 한생을 아름답게 살마음으로 그는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였다. 통일거리에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을 모시는 사업이 진행될 때에도, 혁명의 성지 백두산지구를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이 진행될 때에도 그는 자기의 성의를 다 바치였다. 희천발전소건설을 돕는 사업에도 앞장섰고 초소의 병사들을 위하는 일에도 적극 나섰다. 남편인 전쟁로병 백근성동무와 자식들도 그를 힘껏 도왔다.

《공민이라면 나라에 무엇인가 이바지하는것이 있어야 한다. 나라가 있고야 가정도 있고 행복한 생활도 있는거란다.》

이것은 리춘실녀성이 자식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 그에게 분에 넘치는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

우리는 방안의 꽃들을 오래동안 바라보았다. 가슴에 흘러드는 꽃향기는 마치도 한 녀성의 삶의 향기처럼 느껴졌다.

본사기자 리경일

청년대학생의 고상한 미풍

한 전쟁로병이 보내온 편지를 읽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청년들속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당에 대한 충실성, 대중적영웅주의, 혁명적동지애와 의리, 뜨거운 인정미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꽃필수 있는 아름다운 소행입니다.》

얼마전 우리는 본사편집국앞으로 보내온 락랑구역 락랑3동에 살고있는 전쟁로병 고준하로인의 편지를 받아보았다.

《불비쏟아지던 전호가와 더불어 군복을 입고 살아온 이 늙은이를 그토록 위해주는 한 대학생의 아름다운 소행을 전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 나이 여든이지만 설날과 생일은 물론 휴식일마다 우리 집을 찾아와 군사복무의 나날들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는 그를 대할 때면 가슴뜨거워지군 합니다. 얼마전에는 제가 앓는다는것을 알고 많은 약재와 비전향장기수들을 형상한 소설책들을 가지고와서 전화의 불비속도 남먼저 헤쳐온 할아버지같은분들이 누구보다 건강하여 강성대국의 대문으로 들어서야 한다고 힘을 주는것이였습니다. …》

편지는 혁명선배를 위하여 진심을 바치고있는 한 대학생청년의 소행에 대하여 전하고있었다.

명절이면 고준하로인의 집을 찾아 앓을세라, 생활상애로를 느낄세라 뜨거운 마음을 기울이고있는 대학생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고준하로인이 그 대학생청년을 알게 된것은 몇년전 뜻깊은 태양절이였다. 그날 로인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셔진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삼가 인사를 드리고 손녀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리는데 한 대학생청년이 조용히 다가서며 부축하는것이였다. 군사복무를 마치고 대학생이 되였다는 그는 함께 집으로 가는 과정에 고준하로인이 오랜 기간 군사복무를 하여온 전쟁로병이며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옵고 삶의 순간순간을 빛내여온 지식인이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날부터 그 대학생청년은 전쟁로병의 집을 자주 찾아 군복과 함께 흘러온 값높은 한생의 자욱자욱을 새겨안았으며 전세대들처럼 청춘시절을 값있게 보낼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편지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혁명선배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선군시대 청년들의 순결한 의리의 세계, 우리 사회의 고상한 풍모가 아름답게 비껴있었다.

전쟁로병이 보내온 편지의 주인공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공학부에서 공부하고있는 김광혁동무였다.

이런 청년들이 많아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우리 사회에는 숭고한 사랑과 의리에 대한 이야기가 끝없이 전해지고있다.

김옥별

평화수호는 전체 조선민족의 신성한 의무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우리 겨레모두에게 나서는 사활적인 과제이다. 반전평화수호투쟁의 주인은 다름아닌 우리 조선민족자신이다. 그 누구도 우리 민족을 대신하여 이 땅의 평화를 지켜줄수 없다. 올해공동사설이 온 민족이 전쟁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정의의 애국투쟁에 총궐기해나설것을 호소한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지향과 열의는 비상히 높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위험한 북침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의연히 파국상태에 처해있으며 조선반도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긴장하고 첨예하다.

조성된 정세는 해내외의 온 겨레가 내외호전광들의 북침전쟁책동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평화를 보장할수 없으며 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평화수호투쟁은 민족의 생존터전을 지키고 자주적운명개척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민족이 반만년을 내려오며 살아온 귀중한 조국강토는 또다시 페허가 되게 될것이다. 이 땅에서 지금도 살고있고 앞으로도 이 땅에서 행복과 번영을 창조해나가야 할 우리 민족은 이것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조국강토와 영원히 운명을 같이해야 할 우리 민족은 내외침략세력이 몰아오는 전쟁위험을 막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여야 한다.

평화는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평화를 떠나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바랄수 없고 민족의 밝은 전도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평화를 수호하지 못한다면 누구든 참혹한 전쟁의 희생물이 되는 비참한 운명을 면할수 없으며 민족의 생존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우리 민족성원 누구도 평화수호투쟁을 외면할수 없다. 평화수호투쟁은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이다.

평화수호투쟁은 조성된 현실의 절박한 요구이다.

조국통일운동과정은 그것을 반대하는 내외호전광들의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동반한다.

우리 조국강토를 두동강내고 민족분렬의 비극을 강요한 미국은 남조선을 타고앉아 지난 60여년간 침략전쟁책동에 미쳐날뛰면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아왔다. 미국은 범죄적인 대조선지배야망밑에 이미 지난 세기 50년대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여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참화를 들씌웠다. 그후에도 북과 남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음으로양으로 반대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침공하기 위한 책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렸다. 미국은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를 비롯하여 각종 전쟁각본들을 짜놓고 그것을 계속 수정보충하면서 남조선당국을 사촉하여 대규모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려놓고있다. 올해에만도 미국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평화애호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괴뢰군과 함께 크고작은 북침전쟁연습들을 매일같이 벌려놓았다. 얼마전에는 남조선호전광들과 야합하여 그 무슨 《급변사태》에 대비한다고 떠들면서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또다시 벌려놓음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초긴장상태에로 몰아넣었다.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남조선호전광들은 외세를 등에 업고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피눈이 되고있다.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침략정책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의 전쟁책동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할수 없으며 민족의 운명과 안전도 지켜낼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내외호전광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여 힘차게 투쟁하는것은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해내외 온 겨레가 평화수호를 위한 대중적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조국애, 민족애는 민족성원들의 고상한 사상감정이다. 조국땅우에 시시각각으로 핵전쟁의 불구름이 짙게 드리우고있는 오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으로 된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조선사람이라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하는 호전광들의 분별없는 망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평화수호투쟁은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동한다. 자주통일은 우리 겨레의 지향이며 전쟁과 분렬은 우리 민족의 의사가 아니다. 외세에 의하여 비록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어도 우리 겨레는 조선반도의 평화에 대한 공동의 지향으로 하여 반전평화수호의 길에서 리념적으로 굳게 결합되여있다.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끼리 뭉친 힘은 그 어떤 침략전쟁세력도 당해내지 못한다.

평화수호투쟁은 승리가 확고히 담보되여있는 투쟁이다. 우리 공화국의 선군정치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 힘있는 무기이다.

내외호전광들이 북침전쟁도발에 미쳐날뛰고있지만 이 땅에서 전쟁이 억제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공화국의 선군정치가 위력하기때문이다. 선군정치는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침략적인 외세와 그와 결탁한 민족반역무리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을 무적의 힘으로 단호히 억제하고 온 겨레에게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며 그들을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것은 민족공동의 과제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공동사설의 호소따라 단합된 힘으로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위험천만한 북침전쟁도발책동에 준엄한 철추를 내려야 하며 민족운명개척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평화수호투쟁에서 승리는 내외침략세력의 전쟁책동을 짓부시기 위해 일떠선 우리 겨레에게 있다.

라 설 하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강국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두고 남조선인민들은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새겨안고있으며 일심단결의 화원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종교인은 《이북에서는 령도자께서 출중하시여 민중이 일심단결되고 온 사회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있다. 령도자와 민중이 일심단결된 이 희한한 현실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신비경이라 아니할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늘나라도 아닌 바로 한지맥으로 잇닿아있는 북에 리상향이 펼쳐진데 대해 긍지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서울에 사는 한 인사도 출판물에 낸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이북의 전체 주민은 사회주의보루인 공화국을 지키는것이 이 땅의 평화와 진보적인류의 미래를 지키는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있다. 이북주민들은 그런 의지로 미국을 능히 제압할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고있는것이다. 령도자를 중심으로 일심단결되여 자랑스러운 조국을 지키는데 한목숨바칠 각오를 하고있는 이북인민들의 힘은 무한대하다.》

이것이 어찌 그들의 심정이라고만 하랴.

남조선민권연구소의 한 상임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사회주의수호전을 통해 다져진 이북의 일심단결은 오늘날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전당, 전국, 전민의 동지적단결과 혈연적뉴대를 더욱 굳건히 하며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다. 이 단결은 내 나라의 푸른 하늘아래 펼쳐질 강성대국의 미래를 확신하며 사회주의를 빛내이려는 이북민중의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고 강성대국의 려명을 불러온 위대한 힘으로 되였다.》

어느 한 정치평론가도 《이북에서는 령도자와 국민이 하나의 사상과 뜻으로 혼연일체를 이루고 그 위력으로 강성대국에로 줄달음치고있다. 사상과 정치의 힘에 의한 이 거대한 위력은 그 어떤 경제력이나 군력과도 비교할수 없을것이다.》라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곳곳에서 울려나오는 이 심장의 목소리들은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 혼연일체를 마련하시여 민족의 존엄을 지켜주시고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남녘겨레들의 한없는 경모의 정과 열렬한 흠모심의 분출이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 이런 글이 실린적이 있었다.

《이북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수성은 령도자와 군대, 민중이 하나이라는 사실이다. 지구상에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을 가진 나라는 이북밖에 없다. 자기의 령도자를 친어버이로 부르며 령도자와 만나면 뜨거운 눈물과 열렬한 환호성으로 신뢰와 존경심을 표시하는 군민을 가진 나라가 이북외에 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 오직 **김정일**령도자님을 높이 모신 이북의 군대와 인민만이 이러한 일심단결의 화폭을 펼칠수 있는것이다.》

진보단체의 한 인사는 부산에서 열린 어느 한 토론회에 참가하여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들가운데서 일심단결의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북이다.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은 이북을 방문하여 일심단결의 비결을 배우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이제 우리도 이북의 이러한 단결과 단합의 전통과 력사를 따라배우며 반세기이상 분렬된 조국의 참상을 하루속히 종식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북동포들의 전민족대단결호소에 적극 호응해나서야 한다.》

일심단결로 존엄높은 공화국의 불패의 위용에서 민족의 무궁번영할 래일을 확신하고있는 남녘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해나갈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본사기자 장 윤 남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과 관련한 우리 공화국의 립장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과 관련한 우리 공화국의 립장을 2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캄보쟈의 아까뻬통신은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전쟁연습을 벌려놓았다고 하면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방대한 핵공격수단들이 투입되는 핵전쟁연습으로 락인하였다.

대변인은 미국이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하여 운운하고있지만 이번 연습이야말로 도발적이며 그 누구의 《급변사태》에 대비한다는 연습의 목적과 성격으로 보아도 도발중의 도발이라고 단죄하였다.

대변인은 대규모전쟁연습을 벌려놓은 미국의 처사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정당방위를 위한 조선군대의 물리적대응이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은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여있다고 하면서 대변인은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격화시켜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더 많다는것을 미국은 똑똑히 알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파키스탄의 PPI통신, 로씨야신문 《이즈베스찌야》, 인디아신문 《인디아 유럽 뉴스 앤드 인포메이숀 뷰로》, 우루과이신문 《라 후벤뚜드》, 민주꽁고신문 《라 쁘로스뻬리떼》, 수리아라지오 및 중앙TV방송, 브라질공산당 인터네트홈페지 《베르멜유》도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보도하였다.

한편 로씨야의 인터네트신문 《레볼류찌야》,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과 공산주의로동자당—혁명적공산주의자당 인터네트홈페지들, 브라질사회주의청년동맹 인터네트홈페지는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성명과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상세히 전하였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에서도 인터네트에 올렸다.

통일운동말살을 노린 악랄한 책동

지금 북남사이에는 남조선집권세력의 반통일대결정책으로 하여 당국대화는 물론 민간단체들사이의 접촉과 래왕도 모조리 가로막히고있다. 그런데 최근 남조선당국이 북남민간단체들사이에 진행되여오던 모사통신련계마저 차단하려고 획책하고있어 내외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남조선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을 뜯어고쳐 민간단체들이 우리 공화국에 모사전송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고있으며 만일 승인이 없이 모사전송을 하는 경우 많은 벌금을 부과하려 하고있다. 실제로 남조선통일부는 지난 2월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3.1인민봉기 92돐을 맞으며 발표할 북남녀성단체들의 공동선언문에 대한 협의를 위해 공화국의 단체와 통신련계를 가지려는것을 가로막았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에서는 통일운동의 초보적인 자유마저 짓밟는 반인권적, 반통일적망동이라는 단죄규탄의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의 집권세력은 지난 3년간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악랄하게 반대하면서 온갖 부당한 구실과 조건을 내대고 당국대화는 물론 북남민간단체들사이의 래왕과 접촉, 협력과 교류를 사사건건 방해하였다. 특히 지난해 《천안》호사건이 일어난 이후 보수패당은 그 무슨 《5.24조치》를 운운하며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의 공화국방문신청을 줄줄이 차단하였다. 지어 인터네트를 통한 북과 남의 기사교류마저 파탄시키였다.

그러나 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을 박차고 북남단체들사이의 련대련합으로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의지는 꺾을수 없었다.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은 당국의 반통일책동으로 북의 동포들과 만날수 없는 조건에서 서신거래의 방법으로 서로의 의사를 나누며 통일운동을 계속 활발히 벌리였다. 북남관계가 격페되여있는 지금 모사전송은 북남동포들사이의 접촉과 의사소통의 유일한 통로로 되고있다.

이것을 못마땅히 여긴 남조선의 반통일분자들은 《남북교류협력법》을 뜯어고치면서까지 북남민간단체들사이의 접촉의 실마리마저 끊어놓으려고 책동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의 반통일적망동으로 북남민간단체들이 접촉할수 있는 마지막통로까지 가로막힐 위험에 처하였다.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의 동포들이 부단히 접촉하고 협력하며 교류하여야 한다. 더우기 북남대결이 극단에로 치닫는 지금의 형편에서는 북과 남이 모사전송뿐아니라 가능한 모든 형식과 수단을 다하여 부단히 접촉하고 대화하여도 부족할판이다.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북남민간단체들의 통일운동을 적극 도와나서는것이 옳은 처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통일부는 서신거래의 자유마저 짓밟으면서 북남민간단체들사이의 모사전송을 차단하려고 발광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군부파쑈독재자들이 인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입을 틀어막으며 지어 통일이라는 말만 해도 무자비하게 감옥에 잡아가두던 망동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 그러니 남조선인민들이 반통일광신자들의 책동을 어찌 무지막지한 인권유린행위, 반통일범죄로 락인규탄하지 않겠는가.

북과 남의 동포들이 접촉하는것을 그렇게도 못마땅해하면서 그 길에 더욱 무거운 차단봉을 내린 남조선당국의 처사야말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지금 남조선이 세계최악의 인권유린지대로 악명떨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남조선당국이 얼마전 모처럼 마련된 북남군사실무회담을 결렬시킨데 이어 외세와 함께 북침을 가상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는것으로도 부족하여 민간단체들사이의 통신련계마저 끊어놓으려는것은 그들이 동족대결에 얼마나 환장이 되여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6.15통일시대에 북남민간단체들사이의 통신련계까지 불법으로 되고 탄압당하는것은 실로 비극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인민들의 통일운동의 자유를 말살하고있는 이 죄악만으로도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면할수 없다.

본사기자 은 정 철

괴뢰패당의 반민족적행위를 규탄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이 9일 론평을 발표하여 괴뢰패당의 반민족적행위를 규탄하였다.

론평은 8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 회의에서 국토해양부가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라는 명칭을 슬그머니 동해종합해양과학기지로 바꾼 사실이 발각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지금 각계에서는 이에 대한 폭발적인 비난이 쏟아져나오고있다고 하면서 국토해양부의 이러한 행위는 일본과의 《조용한 외교》에 충실한 외교통상부의 압력때문이라고 론평은 주장하였다.

론평은 당국이 외교통상부를 앞세워 독도를 서서히 민중의 머리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획책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령토침략야욕이 더욱 집요하고 로골화되고있다고 하면서 론평은 당국이 언제까지 일본의 눈치를 보겠는가고 반문하였다.

론평은 《정부》가 민중의 머리속에서 독도를 지워버릴 생각을 하지 말고 일본이나 지우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책동을 규탄

재중동포단체들 단죄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변지구협회와 산하지부들,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연변지구 청년위원회가 6일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모임을 가지고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강행을 규탄하였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남조선괴뢰패당이 내외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침략군사행동으로 도전해나선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로써 나라의 평화와 통일은 물론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도 안중에 없고 오직 동족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는 호전광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였다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그들은 이번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새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고 민족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용납 못할 북침도발행위라고 단죄하였다.

미국과 남조선친미호전세력은 반공화국대결과 북침전쟁도발책동인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고 조선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대화와 협상의 마당에 무조건 나서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조국인민들과 함께 호전광들의 광란적인 북침전쟁연습소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성명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요구하여 8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는 조선반도의 긴장격화의 기본요인인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을 준렬히 규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직접 겨냥한 이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은 철저히 전쟁도발행위이며 지역의 긴장완화와 안정보장을 위한 노력에 커다란 장애로 되고있다.

국제련락위원회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하여 미국과 남조선이 조선반도정세의 격화와 지역전쟁발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는 이 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국제련락위원회는 조선인민의 숙원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모든 진보세력들이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고 그 즉시적인 중지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한다.

【조선중앙통신】

북침전쟁연습중단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단평 날벼락

미국이 벌리는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서슴없이 뛰여들어 민족을 욕되게 하던 남조선당국이 혼쭐이 났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이 아프가니스탄에 그 무슨 《지방재건》의 명목으로 꾸려놓은 기지주변에 난데없는 2발의 로케트탄이 날아와 터진것이다.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지원한다고 돌아치던 남조선당국자들에게는 실로 날벼락이 아닐수 없다.

아프가니스탄전쟁은 세계제패를 꿈꾸는 미국의 군사적강권과 전횡이 빚어낸 부정의의 침략전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미사대와 외세의존에 환장한 남조선당국은 미국상전의 강요대로 아프가니스탄전쟁터에 청장년들을 대포밥으로 섬겨바쳤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지방재건》의 간판을 내걸고 민간인들까지 파견하여 미국의 날강도적인 침략만행을 미화하고있다.

죄는 천도깨비가 짓고 벼락은 고목이 맞는다고 남조선당국의 쓸개빠진 망동으로 재난을 당하는것은 민간인들이다. 몇해전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남조선민간인들이 랍치,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아프가니스탄무장세력의 이번 로케트포공격으로 불안에 잠긴 남조선당국은 현장조사를 벌린다 어쩐다 하며 분주랑을 피웠다. 하지만 그것은 행차뒤 나발이다.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침략적인 《반테로전》에 계속 가담해나선다면 이런 재난은 결코 피할수 없다.

복 은 희

괴뢰당국의 폭정을 심판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집회

파국에 처한 경제, 도탄에 빠진 인민생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저들이 집권하면 《경제를 살려내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지금 남조선은 그야말로 경제와 인민생활파탄으로 수라장이다. 기업들이 무리로 파산되는 속에 물가와 집세, 각종 명목의 세금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껑충껑충 뛰여오르고 일자리는 날을 따라 줄어들고있다. 이로 하여 남조선 각계에서는 《고물가, 전세값상승, 청년실업 등 민생대란은 〈정부〉의 총체적실정때문》이라는 울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은 두말할것 없이 경제와 인민생활파탄의 근원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경제를 살리려면 미국자본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대미수출을 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집권하자부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기를 쓰고 매달렸다. 굴욕적인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경우 가뜩이나 경쟁력이 약한 남조선기업체들이 파산의 위기에 몰리게 된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자마자 미국을 행각하여 《자유무역협정》의 미국회비준을 구걸하면서 그 대가로 소고기시장을 미국에 전면개방하였다. 하여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커다란 위험을 조성하고 수많은 축산농가들을 파산의 운명에 몰아넣었다. 지금 외국독점자본가들은 남조선경제의 명맥을 틀어쥐고 엄청난 리윤을 짜내고있다. 그러다가도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는것 같으면 알속을 걷어가지고 빠져나감으로써 남조선경제의 혼란과 위기를 더욱 가증시키고있다.

바빠맞은 남조선당국이 경제를 안정시킨다고 떠들며 《성장위주의 정책》이니 뭐니 하는것들을 련이어 내놓았지만 그것은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고있다. 오히려 채무만 늘어나고 기업체들의 대대적인 파산사태만을 빚어냈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수천개의 중소기업들이 무리로 파산당한것은 물론 쌍룡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들까지 줄줄이 파산매각되였다. 외세의존에 환장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경제정책이 빚어낸 후과는 실로 엄중하다.

남조선에서는 지난 3년간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희생시켜 한줌도 못되는 특권족속들의 배를 불리워주는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으로 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악이 더욱 심화되였다.

남조선당국자는 집권초기 실업과 사교육비, 부동산문제 등 《3대서민고통문제》를 운운하며 로동자들이 《일자리걱정을 하지 않게 하겠다.》,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요란히 광고하였었다. 하지만 그후 얼마 못가 《고용의 유연성》을 떠들면서 기업주들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로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수 있도록 하는 《비정규직사용기한연장》, 《근로자파견업종전면확대》정책을 공공연히 들고나왔다. 또한 등록금을 끌어올리고 수많은 대학생들을 휴학사태에 몰아넣는 《대학자률화》, 《대학민영화》정책, 농민들의 숨통을 조이고있는 《농업구조조정》정책 등을 강행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근로인민대중을 위한것이 아니라 한줌도 못되는 특권족속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명백히 반인민적인것이다.

보수당국의 반역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 최고부유층과 최하층의 소득격차는 14.5배이상에 달하였으며 빈곤층은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더우기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67%가 《생계형중산층》으로서 임의의 시각에 빈곤층으로 전락될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한다. 매해 60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실업을 구제》하겠다던 남조선당국의 공약은 오히려 5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와 언제 일자리를 떼울지 모를 불안속에 사는 800만여명의 비정규직근로자를 산생시키였다.

어찌 그뿐인가.

식료품과 주요생활필수품들의 가격이 뛰여오르는 가운데 인민들의 뼈를 깎고 피를 짜낸다는 《골세》, 《혈세》로 불리우고있는 세금도 나날이 치솟아 남조선주민세대당 년간소득의 1.4배에 해당되는 빚을 지고있다고 한다. 지난해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815만여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은행들로부터 《신용불량평가》를 받아 더는 돈을 꿀수 없게 되였으며 지원금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수 없는 빈곤층은 585만여명에 이르렀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영난과 생활난, 빚에 쫓기던 나머지 썩어빠진 사회를 저주하면서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서민성공시대》공약이라는것을 들고나왔지만 그것은 결국 《서민암흑시대》를 펼치는것으로 막을 내렸다.

《시장에서 남새를 파는 한 상인은 자기는 한자리에서 20년째 장사하는데 요즘처럼 힘든 때가 없다고 말하였다. 모두가 정말 힘들다고 말한다. 먹고 사는 일조차 감당하기 힘든 서민들에게 하루하루는 정말 끔찍하다. 그들은 장보러 나가기도 무섭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늘어나는 사교육비가 더 무섭다고 한다. 등록금낼 돈이 없어 자식들을 대학 못보낼가 두렵고 또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한다 해도 취직을 못할가봐 걱정이다. … 》

지난해 남조선의 한 신문에 실렸던 이 글을 통해서도 집권세력의 반인민적악정으로 남조선에서 경제와 인민생활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날을 따라 더욱 악화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남조선사회의 암담한 현실은 현 보수집권세력이야말로 특권족속들의 리익만을 대변하면서 근로인민들의 리익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용납못할 반역집단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인민을 등진 반역세력에게 인민생활의 안정을 기대한다는것이야말로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것과 같다. 남조선인민들은 보수당국의 집권 3년간을 돌이켜보면서 반역정치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초보적인 생존권조차 누릴수 없다는것을 뼈저리게 깨닫고있다.

본사기자 심 철 영

사회주의조선은 진보적인류의 희망의 등대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꾸바, 수리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캄보쟈, 먄마, 방글라데슈, 네팔, 우즈베끼스딴, 이딸리아, 스위스, 뽈스까, 스웨리예, 체스꼬, 로므니아, 우간다, 적도기네, 메히꼬, 브라질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2월 5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연회, 집회, 도서,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으며 그앞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이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행사장들에 전시되여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주체사상탑》, 《강성대국의 불보라》, 《조선의 대답》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는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외무성 부상, 혁명무력성 정치국 부국장, 제 인민간의 친선협회 부위원장, 수리아아랍사회부흥당 지역지도부 조직부장, 행정개발담당 국무상, 군대 및 무장력 부총참모장, 외무성 부상, 인도네시아인민협상회의 의장, 문화관광성 총서기, 파키스탄외무성 국무상과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담당 총국장, 말레이시아재정성 부상, 외무성 부상, 전국말라이통일당, 인민운동당 지도부성원들, 캄보쟈 국무상들, 왕국군 부총사령관, 크메르민주당 위원장, 문화예술상, 관광상, 수상고문, 먄마외무상, 호텔 및 관광성 부상, 방글라데슈 수상특별보좌관, 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인민련맹 위원장, 네팔헌법의회 의장과 부의장, 공산당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토지개혁 및 관리상, 이딸리아국회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통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평화와 사회주의운동 총비서, 스위스외무성, 국방성 국장들, 뽈스까외무성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 공산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인민군동맹 위원장, 스웨리예의 공산당 위원장, 체스꼬국회 하원 검열위원회 위원장, 로쥬미딸시 시장,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우간다외무성 상임비서, 적도기네민주당 부총비서와 국제부장, 외무, 국제협조 및 프랑스어사용국담당성 총국장들, 메히꼬 로동당 전국조정위원회 조정자, 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사회주의인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브라질공산당, 로동당, 자유조국당 지도부성원들 등 각계 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책임자들, 해당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였다.

우리 나라 대표부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행사들에서는 연설과 발언들이 있었다.

인도네시아인민협상회의 의장은 존경하는 **김정일**령도자각하의 탄생일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선군정치가 있음으로 하여 조선은 위력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한 군사강국으로 되였으며 미국과 당당히 맞서나가고있다.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조선인민은 반드시 가까운 앞날에 강성대국을 건설하고야말것이다.

파키스탄외무성 국무상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어떤 외세의 압력에도 끄떡없이 전진해나가는 조선의 기상은 파키스탄인민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파키스탄은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며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조선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바란다.

먄마외무상은 **김정일**각하는 선군정치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조선인민의 어버이이시라고 칭송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지난해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각하께서 당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은 그이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표시로 된다. 조선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서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떨치고있는것은 **김정일**각하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다.

이딸리아평화와 사회주의운동 총비서는 2월의 명절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진보적인류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면서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것으로 하여 만민의 높은 존경과 신뢰를 받고계신다고 격찬하였다.

적도기네민주당 부총비서는 조선인민은 **김정일**각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나라의 부강발전과 평화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고 찬양하였다.

브라질자유조국당 전국지도부 비서는 조선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인류의 희망의 등대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승리만을 떨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 ⁂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와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가 2월 1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백두산밀영에서 탄생하시여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성장하신데 대하여서와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하시였으며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체적인 국방력을 강화하시여 공화국을 자주적인 핵억제력을 가지고 그 어떤 침략자도 타승할수 있는 사회주의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참으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밑에 조선인민의 민족적존엄은 세계에 빛나고있다.

오늘 조선의 경제분야에서는 대고조가 일어나고있다.

주체적인 사회주의민족경제가 활성화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꽃펴나고있다. 뜻깊은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한다.

본사기자

《안보》에 가리워진 음흉한 속심

최근 일본, 남조선괴뢰들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련이어 강행하고있는 미국이 5월에 일본과 미일동맹강화를 위한 그 무슨 《안보협의위원회》라는것을 개최하려 하고있다.

지난해 미국은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 일본해상《자위대》 장교들을, 일본과의 합동군사연습에는 남조선괴뢰군을 《참관》의 명목으로 참가시켰다. 또한 지난해 일본당국은 남조선과 《안보공동선언》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올해 1월에는 일본방위상이 남조선을 행각하여 남조선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벌려놓고 일본《자위대》와 남조선괴뢰군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군수물자제공협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2월말부터 미국이 남조선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은 가운데 미륙군사령관까지 남조선에 기여들어 전쟁분위기를 고취하였다.

지난해는 일본과 남조선이 《안보공동선언》이라는 새로운 군사적결탁의 주추돌을 박아놓고 침략적공조확대를 추진해온 해였다면 올해는 미국이 그 주추돌우에 《안보협의위원회》라는 전쟁말뚝을 세워놓고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책동을 본격화하려 하는 해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미국이 일본과 《안보협의위원회》라는것을 벌리려는것은 미일사이의 새로운 군사적결탁강화를 노린것으로서 여기에는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구축을 완성하려는 범죄적흉계가 깔려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남조선과는 《호상방위조약》을, 일본과는 《안보조약》을 통해 3각군사동맹의 기틀을 형성해왔다. 이제 일본이 남조선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등을 체결하게 되면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조작은 사실상 법률적으로 완성되게 된다.

미, 일,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이 구축되면 그것을 지레대, 도약대로 하여 아시아와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더욱 모험적으로 추진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힘으로 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는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그러나 미국의 파렴치한 아시아지배야망과 현실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다. 아시아지역에서 반제반전평화옹호력량은 날로 장성강화되고있다. 이 지역의 대국들은 미국의 잠재적적수로 되고있다. 세력관계는 미국에 불리하게 전변되고있다.

이러한 형세를 역전시키기 위하여 아시아지역에서 힘의 정책을 강화하고 침략과 전쟁준비를 완성하려는것이 미국의 반동적대아시아정책의 기본이다.

이에 있어서 미국이 보다 중요성을 부여하고있는것은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그를 침략적대아시아전략실현에 쓸모있게 써먹자는것이다. 일본은 경제적잠재력과 인적자원, 침략경험을 가지고있다.

미호전세력은 미일동맹강화와 함께 3각군사동맹구축을 통하여 일본과의 이중적인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그를 미국의 전쟁정책에 철저히 종속시키며 여기에 남조선을 망라시켜 아시아에서 절대적인 군사적우위권을 획득하고 저들의 잠재적적수들,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 맞설수 있는 침략적군사뿔럭을 만들어내려 하고있다. 다시말하여 미국은 한편으로는 침략적인 동맹국, 추종세력의 무력까지 동원하여 아시아에서 잠재적적수들을 견제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 나라들이 서로 반목질시하며 싸우게 함으로써 어부지리를 얻고 반제반전평화옹호력량을 약화, 붕괴시키려 하고있다.

미국이 일본과의 《안보협의위원회》개최니 뭐니 하는것은 그와 같은 음흉한 속심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미당국자들이 그럴듯 하게 달아붙인 《안보협의위원회》는 한갖 위장물에 불과하며 그 막뒤에서 추구하는 진짜속심은 《안보》의 외피를 씌워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아시아판나토를 조작하려는데 있다. 미국이 일본, 남조선괴뢰들과 합동군사연습을 강화하고있는것도 그와 관련된다. 미국은 그 어떤 잔꾀로도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구축야심을 감출수 없다.

미국주도의 3각군사동맹구축책동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정세를 대결과 전쟁국면에로 이끌어가고있다. 아시아인민들은 심각한 현사태에 우려를 표시하며 경계심을 높이고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자들은 결코 무사할수 없다. 미국은 군사적대결과 전쟁을 불러오는 범죄적인 3각군사동맹구축책동으로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김 종 손

《조선의 일심단결》

메히꼬단체 불레찐 발행

메히꼬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에서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을 보여주는 사진을 싣고 불레찐 제52호를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조선의 일심단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가 국가정치체계의 근본초석으로 되고있는 나라, 전체 인민이 령도자와 뜻과 운명을 같이하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심단결은 사회주의조선이 어떤 정치풍파에도 끄떡하지 않게 하는 근본요인이다.

령도자와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 이것이 바로 조선사회의 공고한 정치적지반으로 되고있다.

일심단결에 기초한 조선의 정치적지반은 날이 갈수록 더욱 공고해지고있다.

2010년 9월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령도자를 전체 당원들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 당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데 이어 10월에 당창건 65돐 경축행사들이 전체 인민의 드높은 열의와 환희속에 성대히 진행된것은 조선의 정치적지반의 공고성, 사회주의의 불패성을 다시금 만천하에 과시한 특기할 정치적사변이였다.

일심단결은 조선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기적적인 사변들이 일어나게 하는 근본원천이다.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조선에서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되고있다.

이 모든것은 다름아닌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면서 최첨단을 돌파하여 하루빨리 강성대국을 건설할데 대한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가장 훌륭히 실현하기 위하여 전체 인민이 한결같이 분발해나선 결과이다.

일심단결은 그 어떤 강적도 두려워하지 않는 조선의 막강한 힘의 근본바탕이다.

조선에는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령도밑에 관병일치, 군정배합을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한 조선인민군이 있다. 그리고 령도자를 받드는 길에서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한 군민대단결이 있다.

령도자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이러한 일심단결, 군민대단결이 조선사람들모두가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결사수호정신, 무비의 희생정신을 발휘하게 하는 원천으로 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이란에서

이란에서 언제건설에 힘을 넣고있다. 현재 나라에는 350개의 언제가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 300개이상의 언제를 더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8일 이 나라 신문 《이란뉴스》가 이에 대해 밝혔다.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에서 7일 전국적인 소아마비예방접종깜빠니야가 시작되였다. 이번 깜빠니야기간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이 예방접종을 받게 된다. 정부는 소아마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의 서부지역에 생물디젤유공장이 새로 건설되여 8일에 조업하였다.

공장에서는 야자기름생산과 고기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륜전기재들에 리용될수 있는 디젤유를 생산하게 된다.

공장의 년간생산능력은 80만t에 달한다.

먄마에서

먄마정부가 9일 위성발사를 위한 중앙위원회를 내왔다.

위원회는 자체의 힘으로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정책을 작성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선진우주기술을 도입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맡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올해 1월에 공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 증가하였다.

이 기간 제조업부문에서 생산이 많이 늘어났다.

10일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에서 풍력자원리용

중국외교부장

중미관계문제에 대해 언급

중국외교부장 양결지가 7일 기자회견에서 중미관계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중국과 미국사이에 일련의 문제들에서 의견상이와 마찰이 존재하고있는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면서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를 견결히 반대한다고 말하였다. 중국은 중미사이의 3개 공동콤뮤니케와 중미공동성명에서 확정된 원칙과 정신을 준수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중지하며 실지행동으로 량안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지할것을 미국에 요구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스라엘의 그릇된 시도를 배격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상이 8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그릇된 시도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동부경계연선에 이스라엘군을 계속 주둔시키려고 획책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요르단계곡과 동부꾸드스는 팔레스티나령토의 불가분리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요르단계곡과 동부꾸드스가 없는 팔레스티나란 있을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란에서 첫 국산제자행포 공개

이란에서 첫 국산제 155mm바퀴식자행곡사포를 만들어 6일에 공개하였다.

이 나라 국방무력병참상은 새로운 자행포가 이란국방공업부문 전문가들이 이란무장력의 전략전술적요구에 맞게 설계하고 제작한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기 나라가 가까운 앞날에 이 포들을 대량생산함으로써 이란무장력이 가능한 한 빨리 임의의 장소에서 작전을 수행할수 있는 준비를 갖출수 있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싸이버범죄

일본에서 싸이버범죄가 성행하여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최근 이 나라 경찰청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싸이버범죄가 공식 등록된것만도 6 933건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전 미국총령사의 사죄를 요구

일본 오끼나와현의회가 8일 전 미국총령사의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최근 오끼나와주재 전 미국총령사가 총령사로 있을 때 후덴마기지의 현내이설을 반대하는 현주민들을 비방중상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난것과 관련하여 결의는 그것을 용서받을수 없는것으로 락인하였다.

결의는 전 총령사가 현주민들에게 공식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본사기자

오늘의 세계

파산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략 운명에 처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략실행에서 변화조짐이 나타나고있다.

최근 미국무장관은 한 연설에서 자국이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 무력을 증파하는 등 군사적방안을 우선시하던데로부터 정치적경로를 통하여 탈리반과 화해를 실현하는데로 방향을 전환할것이라는데 대해 시사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략이 재조정에 들어갔다는것을 말해준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퇴량난에 처한 미국이 어쩔 도리가 없었던 모양이다.

미국은 지금 탈리반이 《알카에다》와의 련계를 끊고 아프가니스탄정부와 《화해》할것을 바란다고 하고있다.

미국이 올해 7월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며 2014년에 미군의 전투임무수행을 끝낼것이라고 서둘러 발표한것도 아프가니스탄전략재조정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이를 놓고 정세분석가들은 탈리반이 외국군대가 완전히 철수한 후에야 평화회담을 고려할것이라는 립장을 견지하고있는데다가 미국이 철군시간표를 서둘러 발표한것을 리용하여 그들이 지연전술을 쓸것이라고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목적이 달성되겠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있다. 한마디로 그들의 견해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전략재조정에 들어갔지만 장기적인 아프가니스탄전쟁의 진창속에서 쉽사리 빠져나오기는 힘들것이라는것이다. 일리가 있는 견해이다.

사실 미국은 이런저런 리유로 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 장기전을 치를 형편에 있지 못하다.

우선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경제가 제대로 추서지 못하고있는데로부터 승산이 보이지 않는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으로 한정없이 자금을 돌린다는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공화당이 주도권을 쥐고있는 국회 하원에서는 예산축감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어 미행정부가 계획하고있는 아프가니스탄지원자금을 늘일수도 없게 되였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군주도하의 나토군이 탈리반의 공격강화로 수세에 몰리고있다.

탈리반은 외국무력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까지 싸움을 계속할것이라고 하고있다. 지난 2월 28일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나토군병사 6명이 죽었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700명이상에 달하는 나토군병사들이 죽음으로써 2001년 아프가니스탄전쟁이 개시된이래 나토군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해》로 기록되였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아프가니스탄의 치안상황은 달라지지 않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한달동안에만도 자폭공격 등으로 100명의 민간인과 80명의 경찰들이 죽었다. 지난 2월 19일에는 난가하르주 소재지에서 발생한 공격사건으로 38명이 죽고 71명이 부상당하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나토군에 의한 민간인사망자수도 계속 늘어나고있어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얼마전 아프가니스탄정부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동부아프가니스탄에서 있은 나토군의 공격으로 40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65명의 민간인들이 살해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으로 하여 나토측도 곤경에 빠져있다.

나토군대변인이 나서서 나토군에 의해 민간인들이 죽었다는 주장들을 매우 심중하게 대하고있다느니, 즉시 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치안상황이 오죽 심각하면 미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국회 하원에서 있은 청문회에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더욱 간고하고 보다 큰 대가를 치르는 전투를 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비명을 올렸겠는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무력을 파견한 여러 나라들이 자국무력을 철수할 차비를 하고있어 미국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있다.

최근 뽈스까대통령은 올해에 아프가니스탄주둔 자국군의 철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뽈스까정부는 아프가니스탄정세에 대한 분석과 그곳에서의 군사작전의 전망 등을 고려해볼 때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자국무력주둔이 자기들의 리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간주하고있다.

지난해에 네데를란드에서 아프가니스탄주둔 자국무력철수문제를 놓고 분분한 론의끝에 련립정부가 해산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딸리아정부도 올해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국무력을 철수시키려 하고있으며 도이췰란드에서도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고있다.

여론들은 계속되는 싸움과 혼란에 시달리는 아프가니스탄의 복잡한 정국은 평화와 안정을 고대하는 이 나라 사람들의 희망을 허물어놓고있으며 그것은 그대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략의 파산의 운명을 반영하고있다고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조 택 범

에네르기안전보장을 위한 노력

얼마전 유럽동맹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에네르기안전문제가 중점적으로 토의되고 뒤끝에 새로운 에네르기전략이 채택되였다. 주목되는것은 우선 여기에서 유럽동맹 성원국들의 《에네르기외교정책》을 일치시키도록 합의한것이다. 새 에네르기전략에서는 이전에 이 기구의 개별적성원국들이 주요원유 및 가스생산국들과 제각기 대상해오던것을 점차 없애고 유럽동맹위원회가 에네르기수입정형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협상하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되여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유럽동맹 성원국들이 이 분야에서 유럽동맹위원회의 지도적역할을 인정하는것이 선차적이라고 한다. 동시에 유럽동맹위원회는 새로운 동반자들을 찾아내여 에네르기수입원천과 수송통로를 다각화하며 에네르기수출국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좌우지하는 공간을 차단하기로 하였다.

새 에네르기전략에서 주목되는 점은 또한 자체로 에네르기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에네르기분야에서 자립성을 높여나가기로 한것이다. 이 목표실현을 위해 유럽동맹은 핵동력, 수력자원과 함께 지열, 태양열, 풍력 등과 같은 재생에네르기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새 에네르기전략은 원유 및 가스소비량을 목적의식적으로 줄이고 생물연료와 같은 대용연료생산을 늘이며 자전거와 궤도전차 등의 리용을 적극 장려하는것을 이산화탄소방출량을 줄이고 에네르기효률을 높이기 위한 주요방도중의 하나로 내세우고있다.

새 에네르기전략에 의하면 유럽동맹위원회는 앞으로 10년동안에 유럽동맹의 에네르기분야에 1조€를 투자하여 유럽동맹의 에네르기하부구조를 현대화하려 하고있다.

이번 유럽동맹수뇌자회의에서는 2015년까지 초대형고압송전망들을 건설하여 유럽동맹 성원국들의 발전소들을 하나의 송전망체계에 련결하며 발뜨해연안나라들로부터 남유럽에 이르기까지의 가스수송관들을 하나로 련결하는 등 《단일한 에네르기망》을 형성하기 위한 전망계획들이 토의되였다.

유럽동맹이 이번 수뇌자회의에서 새 에네르기전략을 채택하게 된것은 주요원유 및 가스수출국들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이 분야에서 자립성을 높여나가는것이 동맹의 대외적영향력을 강화하는데서 필수적요소로 제기되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고 한다. 또한 에네르기자원을 확보하는것이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는것과도 관련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에네르기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비해 리용가능한 전통적인 화석에네르기자원은 극히 제한되여있다. 앞으로 상업적으로 구입하여 리용할수 있는 화석에네르기자원은 많지 않다. 그리고 화석에네르기자원이 집중되여있는 중동지역 정세가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현실은 에네르기전략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나라나 지역도 안정적인 사회경제적발전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로부터 유럽동맹은 에네르기소비구조를 개혁하여 성원국들에 대한 에네르기공급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수입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것을 새 에네르기전략의 기본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유럽동맹 성원국들속에서 재생 및 대용에네르기개발을 적극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있다. 최근 노르웨이가 첨단에네르기기술개발분야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있다. 이 나라 정부는 재생에네르기 및 환경보호분야기술개발에 앞장서고있는 국내 7개의 연구소들에 앞으로 5년간 해마다 230만€를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투자는 주로 태양에네르기, 생물에네르기, 풍력에네르기, 이산화탄소흡수 및 저장기술개발 등 첨단에네르기기술개발에 집중될것이라고 한다. 노르웨이정부가 선정한 국내연구소들은 앞으로 선진국들과 협력하여 태양빛과 생물연료, 풍력 등 재생에네르기자원을 리용한 전력생산을 촉진시키고 원유나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며 에네르기의 효률을 개선하는것을 목표로 삼고있다. 노르웨이정부는 이 연구소들이 첨단에네르기기술개발분야에서 주동적역할을 할것을 바라고있다.

프랑스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수중에 건설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고있다.

프랑스과학자들이 대륙과 떨어져있는 곳들에 동력을 보장하기 위해 깊은 물속에 소형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할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있다고 한다. 프랑스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 운영하는데서 오랜 력사와 경험을 가지고있는 나라들중의 하나이다. 현재 프랑스는 핵잠수함에 도입한 기술을 공업부문에 리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연구하고있다. 이러한 연구사업은 원자력발전소를 잠수함크기의 형태로 규격화하여 지금 있는 발전소보다 훨씬 적은 투자로 수중에 설치하고 안전한 운영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데 집중되고있다. 프랑스의 한 잠수함건조업체는 자국내 원자력발전소제작업체들과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한 후 2016년말에 50~250MW능력의 첫 수중원자력발전소가동에 들어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길이 100m, 직경 12~15m, 무게 1만 2 000t의 원통형수중원자력발전소는 100m깊이의 해저에 설치하게 되여있는데 형태는 잠수함과 류사하지만 추진기가 없고 잠수함처럼 움직일수 없게 설계되였다고 한다. 이 발전소는 군사적목적에 리용할수 없고 지상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테로공격이나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을 위험성도 적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있다.

재생 및 대용에네르기도입과 그 리용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유럽동맹의 노력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것으로 예상된다고 외신들은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전 영 희

ㄱ-11049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집위원회